

울산바로 보기, 울산바로 느끼기

2016 달빛문화기행 

걸어서 돌아보는

울산의 산과 명승지



“ 2016 달빛문화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걸어서 돌아보는 
울산의 산과 명승지

일시 2016년 4월 ~ 11월 매월 넷째 토요일 (8회)

시간 4월~8월(오후 3시 출발), 9월~11월(오후 2시 출발)

현장도착(30분) → 현장답사(1시간 30분) → 문화 공연 체험(1시간)
→ 남구문화원 도착(30분)

장소 남구문화원 마당(출발 및 도착)

접수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www.ulsanmunhwa.com

(팝업창 바로가기 or 문화행사 - 달빛문화기행 - 신청접수)

한 눈에 보는 달빛 기행



4/23 문수산

청송사지 ▶ 영축사지 ▶
망해사

해금연주, 판소리 및
부채 배우기 체험

7



5/28 임화산

최제우 유허지 ▶ 길촌마을
▶ 참살이 숲

숲 체험 및 제기차기,
시 낭송

31



8/27 신불산

간월사지 ▶ 작괘천 ▶
선무원종공신석각 ▶ 작천정

해금연주, 판소리 및
부채 배우기 체험

81



9/24 삼려봉

대안동 쇠부리터 ▶
관문성 ▶ 기령고개

퓨전공연

101



6/25 마골산

물방골 ▶ 쇠평재 ▶ 반티
밀골 ▶ 장군바위 ▶ 동축사
▶ 망조당 묘소 ▶ 물방골
인형극 및 마술공연

45



7/23 함월산

숫못 ▶ 백양사 ▶ 함월루
다도예절 체험 및 제기차기

63



10/22 봉대산

남목3동사 ▶ 마성 ▶ 동대산
봉수대 ▶ 주전 붓도랑 ▶
쇠평 어린이놀이동산
손수건 염색 및 부채 만들기체험

125



11/26 함월산 · 부처봉

신흥사 ▶
어물동 마애여래 좌상
시낭송 강의 및 배우기,
제기차기

145

인사말씀

2006년부터 시작된 달빛문화기행은 울산을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답사를 통한 현장체험형 향토사 사업입니다.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기에 내가 살고 있는 향토의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느낄 때 울산이라는 지역공동체와의 동질성을 체감하고 ‘울산시민으로의 자긍심을 가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울산의 여러 산들에 산재해 오는 역사문화유적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직접 찾아 답사기행으로 진행되며 학생들과 일반 시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공연 체험과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생활과 삶, 충절과 애국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의 대표적 문화기행 행사로 자리매김해 온 달빛문화기행은 해가 갈수록 호응을 받고 있으며, 강북교육지원청의 ‘아빠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문화해설사의 친절한 해설과 전통 문화공연과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울산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 4.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회장 **변양섭**

개요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산이 많다. 특히 언양과 상북이 있는 서부에는 소위 '영남알프스'라고 해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 영축산, 고현산 등 고봉이 많다.

지역적으로 두동면과 경주 외동면 경계에 치슬령이 있고 연화산과 국수봉도 두동면에 걸쳐 있다.

또 농소면에는 달천 일대에 천마산, 언양에는 화장산, 울산 구시가지 뒤인 성안에는 함월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농소와 강동을 경계로 하는 무룡산도 있다.

이외에도 청량면과 범서읍을 배경으로 문수산이 있다 하면 온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운산도 있다. 정족산과 함월산, 남암산도 울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비교적 산지가 적고 대신 평원이 넓은 남구에도 돌질산이 있어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준다.

옛날부터 태풍이 와도 삼산들이 수해가 적었던 것은 돌질산이 동쪽에서 해풍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산지수명'이라고 해 높은 산이 많은 곳은 명승지가 많기 마련이다.

따라서 올해 답사기행은 울산에 있는 산을 둘러보고 이들 산에 펼쳐져 있는 명승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특히 울산은 산지가 있는 곳마다 고찰을 비롯한 문화 유적지들이 많아 이들을 눈여겨보면 울산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

울산 역사 변천사

삼한시대~조선시대

- **삼한시대**
진한에 속함
- **삼국시대**
신라 제5대 파사왕 때 굴아화현을 취함
- **고려시대**
태조 때 하곡, 동진, 우풍의 3현을 합하여 흥례부로 승격
- **조선시대**
 - 태종13년(1413) : 울주를 울산군으로 개칭
 - 선조31년(1598) : 울산도호부로 승격
 - 고종32년(1895) : 울산도호부가 울산군으로 개칭

1900년대~현재

- **근대**
 - 1914년 : 부·군을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
 - 1931년 : 종래의 면제를 개편, 울산면을 울산읍으로 승격
 - 1936년 : 방어진면을 읍으로 승격
- **현대**
 - 1962년 1월 27일 : 각령 제403호로 울산 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 1962년 6월 1일 : 울산시 승격
 - 1985년 : 중·남구의 구제 실시(2구 1출장소 40개동)
 - 1988년 : 방어진 출장소를 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 1995년 1월 1일 : 울산시·군 통합
 - 1996년 12월 31일 : 울산광역시설치등에 관한 법률공포(법률 제5243호)
 - 1997년 7월 15일 : 울산광역시 출범



4월 기행

문수산



청송사지 - 영축사지 - 망해사



문수산

문수산은 함월산, 무룡산과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산이다. 울주군 청량면 울리에 소재를 두고 있는 문수산은 동쪽으로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과 접하고 있고 서쪽에는 울주군 삼동면 그리고 남쪽에는 웅촌면이 있다. 범서읍은 이 산에서 보면 북동쪽에 있다.

따라서 문수산은 보는 지역에 따라 구도를 달리한다. 울산 시내에서 보면 오른쪽 능선은 완만한 반면 왼쪽 능선이 급하다. 반대로 언양 쪽에서 보면 정상을 기점으로 남과 북의 흐름이 같은 비례로 완만해 아늑함을 준다.

문수산은 고려 때까지도 영축산으로 불리었다. 영축산은 인도 천축국 왕사성 부근에 있었던 산으로 부처가 처음 설법을 했던

산이다. 따라서 영축산이라는 이름은 인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양산에 있는 통도사 뒷산을 영축산이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문수산 아래 있는 청량면의 ‘청량’이라는 이름 역시 자장 율사가 머물렀던 청량산에서 그 이름이 왔다. 자장 율사는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 7년(638)에 당나라로 들어가 보살계를 받은 다음 청량산으로 들어가 문수보살의 감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량산은 중국 산서성 오대현에 있는 오대산의 다른 이름으로 여름에도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이 산에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을 합해 5개의 산봉우리가 솟아 있다.

이 산이 문수산으로 불린 것은 화엄경 제10법 운지로서 보살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수산은 신라 때 문수보살이 산세가 청량하고 아름다워 이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량산으로 불렀다가 나중에 문수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신라시대에는 이곳에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고 보고 경주와 양산 등 울산 인근 사람들이 이 산에 와 부귀다남을 빌었다고 한다.

‘무거설화’ 역시 문수산과 문수보살이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하루는 백척간두에서 있는 신라의 국운을 물어볼 대상을 찾다가 문수산에 있는 문수보살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의테자를 거느리고 울산으로 왔다고 한다.

왕은 울산 태화사에 이르러 우선 참배하고 다시 영축산(현재 망해사가 있는 산)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이 때 한 동자가 나타났다. 동자는 “대왕께서 오시는 줄 알고 영축산으로 모시고 왔습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동자와 함께 길을 나섰다.

그런데 길을 떠난 지 오래지 않아 경순왕이 삼호에 이르러 태화강을 막 건넌을 때 동자승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 때 경순왕은 사라진 동자승이 문수보살임을 깨닫고 실의에 빠졌다.

이후 왕은 탄식하면서 경주로 되돌아가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



● 문수산

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나중에 왕이 탄식한 자리를 ‘혈수정’이라 불렀고 동자승이 자취를 감춘 곳을 ‘무거’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혈수정은 울산대학교 앞에 있고 이 때 생긴 ‘무거’라는 용어로 이 지역 일대가 이후 무거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문수산에 문수보살이 상주했다는 신라 전설이 또 하나 있다. 망덕사 전설에도 문수산이 나온다.

신라 제32대 효소왕 때 망덕사 낙성식이 있었는데 효소왕이 직접 이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효소왕이 행사장에 가니 행색이 초라한 스님 한 분이 나타나 그에게 자신도 낙성식 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망해 왕은 하는 수없이 이 스님에게 말석에서 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제를 마친 효소왕은 스님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은 후 “이후 세상에 나가거든 오늘 나와 함께 망덕사 낙성식 제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스님이 왕에게 “대왕이시여 대왕님도 이 제를 마치고 돌아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진신석가와 함께 예불에 들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 스님이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왕은 자신이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스님을 찾기 위해 스님이 사라진 방향으로 따라갔는데 그 길이 경주에서 봉계를 거쳐 망성으로 이어졌다.

왕은 스님을 찾기 위해 망성까지 왔으나 이곳에 도착했을 때 스님이 이미 문수산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인이 사라진 문수산을 보았다고 해 마을 이름을 ‘망성(望聖)’으로 지었다고 하면 그가 돌아오면서 지전에서 약수를 마셨는데 이 약수가 효험이 있어 이후 지전 약수가 유명해졌다는 전설이다.

문수산은 이름 자체가 불교와 관계가 깊다. 불교에서 문수보살은 대승보살 중 한 명이다. 문수는 ‘훌륭한 복을 지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수보살은 부처가 돌아간 뒤 인도에서 출생해 반야의 도리를 선양한 지혜의 보살이다.

‘반야경’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문수보살은 이 때문에 모든 보살의 스승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문수보살이 청량산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오대산을 문수보살의 상주처로 본다.

일반적으로 문수보살은 연화대에 앉아 오른손에 지혜의 칼을, 왼손에는 지혜의 그림이 있는 푸른 연꽃을 들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사자를 타고 위엄과 용맹을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요 완성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은 삼국시대 이후다. 삼국시대 이후 문수보살은 불교의 상징으로 불자들의 가슴에 자리 잡았는데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삶 속에는 문수보살과 관련된 애

기들이 많이 나온다.

문수보살이 이처럼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문수사와 문수산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수사와 문수산 중 울산에 있는 사찰과 산처럼 불교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찰과 산이 많지 않다.

울산 문수산이 불교문화의 보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울산이 지리적으로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신라의 수도 경주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수산이 이처럼 불자들은 물론이고 울산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지리적 위치 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로 문수산은 전망이 좋다. 해발 600m가 채 못 되는 문수산은 주위 산에 비해 높지 않다. 울주에는 신불산·가지산·간월산 등 문수산보다 높은 산이 많다. 그러나 문수산에 올라보면 울산시는 물론이고 멀리 양산과 경주 일대도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 오르면 울산을 감싸고 있는 다른 산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양산의 영축산, 두동의 연화산, 상북의 고현산과 동대산맥의 끝자락인 무룡산도 볼 수 있다. 울산에 있는 3개의 큰 댐도 모두 볼 수 있다.

문수산에서 보면 사연댐을 북동쪽에, 회야댐은 남쪽에 그리고 대암댐은 바로 산 아래 있는데 이들 저수지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문수산에서 보는 바다의 아름다움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에서 보면 동해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또 가지산으로 넘어가는 일몰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절터가 많다는 것도 자랑거리다. 문수산에는 문수사·축선사·망해사·영축사 등 『삼국유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절터만 해도 4개가 넘는다. 『삼국유사』는 이들 절의 세워진 연대와 창건 얘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없지만 남쪽에 있는 청송사터 역시 사찰의 규모로 볼 때 청송사가 국사급 사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질 좋은 화강암이 많다는 것도 자랑거리다. 경주 남산이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질 좋은 화강암이 많기 때문이다. 사찰에는 석탑과 불상 그리고 석등과 승탑이 있고 또 고승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비석들이 많이 세워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사찰은 화강암을 많이 찾게 되는데 문수산에는 질 좋은 화강암이 많아 사찰 건립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산 곳곳에는 요즘도 깎아지른 암봉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문수사가 자리 잡고 있는 산 정상 부근에는 제비집처럼 암석들이 걸려 있어 문수사의 모습을 한층 아름답게 한다.

문수산에 얼마나 돌이 많았나 하는 것은 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문수산에서 땅을 한 평 파면 돌이 두 평이나 나온다”고 말한다. 이 산에 돌이 많다는

것은 1960년대 초반 정부가 울산공단을 만들면서 석축을 쌓는 데 필요한 돌들을 문수산에서 많이 가져갔다는 데서 알 수 있다.

토굴이 많았다는 것도 자랑거리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처로 사찰을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토굴을 많이 이용했다. 그런데 문수산에는 옛날부터 토굴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수산에 토굴이 많았다는 것은 문수사의 전설에서도 알 수 있다.

『삼국유사』는 문수사 창건과 관련 이 절을 세운 연희국사가 절을 짓기 전 토굴에 숨어 살면서 보현행을 닦고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문수산은 이처럼 사찰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자연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자들이 많이 찾는다. 문수사는 양산의 미타암, 청도 운문사의 사리암과 함께 영남의 3대 기도처로 알려져 있다.

문수산은 울산시내에서 가깝고 산 자체가 높지 않으면서도 가팔라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산에는 불자들과 등산객들보다 먹고살기 위해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름에는 산나물을 뜯기 위해, 겨울이면 땀감을 구하기 위해 인근 사람들이 보따리를 허리에 차고 지계를 지고 이 산을 올랐다.

당시 이 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무거동은 물론이고 성남동과 옥교동 등 울산시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심지어는 언양과 삼남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울산시민들과 함께했던 문수산은 최근 많이 바

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문수산 서쪽에 대암댐이 생긴 것과 동편 망해사가 가까운 옛 영축산 아래로 부산에서 시작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터널이 생긴 것이라고 하겠다.

울산시는 공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삼동 지역 일대에 대암댐을 건설했다. 문수산은 이 댐이 들어섬으로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되었지만 자연파괴와 생태계 변화도 적지 않았다.

댐은 하잠·둔기부락 일대에 조성되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다.

영축산 터널 건설 역시 많은 울산 사람들이 신성한 문수산의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 터널은 당초 계획대로 뚫려 지금은 망해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문수산을 훼손하는 이런 자연 파괴는 요즘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옛 청송사지 아래의 문수초등학교 인근에 울주군청을 건립하면서 인근 산야가 파괴되더니 청송 마을을 거쳐 직동으로 빠지는 넓은 고속도로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수사의 증건 역시 문수산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수사는 고찰이긴 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큰 사찰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찰이 이 지역 출신의 재일 교포 신격호 씨의 재정적 지원 아래 대대적인 중창을 하면서 문수사가 울산을 대표하는 사찰이 되었다.

이처럼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문수보살의 전설이 있는 문수산에 많은 사찰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수산 주위에 있는 사찰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수사

문수사는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연희 국사가 건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찰은 연희국사가 아닌 자장 율사가 지었다는 설도 있다.

이 설은 중국을 다녀온 자장 율사가 울산에 태화사와 양산에 통도사를 건립하면서 울산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이 때 문수산이 너무 깨끗하고 성스러울 뿐 아니라 자신이 중국에서 머물렀던 청량산과 흡사해 이 산을 청량산으로 부르고 문수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1990년대 이 사찰의 주지였던 청하 스님은 문수사 절터는 자장 율사가 잡았지만 정작 사찰은 연희 국사가 건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하 스님은 문수사 터와 관련 자장 율사가 반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청하 스님은 자신도 수행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지만 절터로 문수사보다 좋은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규모로 보면 문수사는 결코 크지 않다. 현재 문수사에는 대응



● 문수사

전, 극락전, 칠성각, 산신각, 보현각, 종루가 있을 뿐이다. 이 건물들은 모두 나름의 특색을 갖고 있다.

극락전은 이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문수사가 중창된 것이 1982년인데 극락전은 이보다 앞서 있었다. 규모 면에서는 대웅전보다 작지만 건축 역사가 오래되어 고풍을 풍기고 있다. 극락전은 나반존자를 주불로 모시고 있다.

극락전 옆에는 자그마한 석탑이 있다. 사찰의 규모에 비해 탑이 작다.

극락전을 돌아 오르면 미륵전이 있는데 이곳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병풍 암석에 붙어 있는 돌부처다. 형체가 너무 파괴되어 원형을 유추하는 것이 힘들 정도다. 이 돌부처는 당초 청송사터 인근에 있었던 것을 청하 스님이 발견해 가져다 놓은 것이다.

돌부처 옆에는 최근 만들어진 약사여래상이 있다. 약사여래는 연꽃 위에 앉아 악병을 들고 점잖게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대웅전은 절터에 비해 웅장하고 화려하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있는데 1982년 백두산 홍송을 가져와 건립했다.

현재 문수사는 보살을 여럿 모시지만 대웅전에는 석가모니가 주불로, 협시보살로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있다. 보현대에는 보현보살을 주불로 하고 협시보살로 문수와 관음보살이 앉아 있다.

망해사

처용설화가 깃들여 있는 망해사는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 시기적으로는 문수사보다 100년 뒤 세워졌다.

『삼국유사』는 망해사 건립과 관련 신라 제49대 헌강왕이 어느 날 울산 개운포에서 놀다가 경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끼어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되자 일관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물었더니 일관이 “동해 용이 장난을 치는 것이니 용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어 풀어야 합니다”고 말해 왕이 영축산 동편 기슭의 경치 좋은 곳을 가려 절을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이 때 세운 절이 망해사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 망해사지 승탑

현재 이 사찰에는 대웅전과 종각, 삼성각이 있다. 1991년 건축된 대웅전은 3포 형식으로 단순하지만 이 건물에는 망해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벽화와 불상이 있다.

망해사는 주불로 석가를, 협시보살로는 양편에 관음보살을 두고 있다. 이중 협시보살은 남산 남석으로 만들어져 가치가 높다.

망해사가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대웅전 뒤 있는 두 개의 승탑이다. 승탑은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탑이다. 모양새로 보면 고려 이전에는 석탑형이 주를 이루었고 조선시대에는 석종형이었다. 망해사 승탑은 둘 모두가 석탑형으로 승탑 자체가 무게감이 있어 장중하면서도 양련문이 장식되어 아름답다.

외형이 비슷한 두 승탑은 탑신의 가공수법에 차이를 보여 건립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승탑은 신라 말기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망해사가 현강왕 때 창립되었기 때문에 승탑 역시 이 무렵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영축사

영축사는 울주군 청량면 영해 마을에 있는데 건립 연대가 정확히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유사』〈영축사조〉에는 신라 제31대 신문왕(683) 때 재상 충원공이 장산국 온천에서 목욕하고 돌아올 때 사냥꾼의 화살에



● 영축사 돌거북

맞은 꿩이 피를 흘리면서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샘 안으로 들어가 날개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감동을 받아 사찰을 세웠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이 절터에는 신라시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쌍탑과 돌거북이 아직 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영축사는 인근 사찰에 비해 규모가 컸다고 한다. 영축사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은 옛날 이 사찰을 관람하기 위해 사찰 앞에 짚신을 벗어놓고 절에 들어간 후 구경을 하고 나오면 시간이 많이 흘러 짚신이 모두 썩어 있을 정도였다는 데서 알 수 한다.

영축사는 이처럼 구전은 많지만 정작 이 사찰이 언제, 왜 폐사

가 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없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이 사찰이 가장 많이 파괴된 것이 일제 강점기와 울산이 공업도시로 지정이 되면서다.

일제강점기에는 도굴꾼들이 석탑에 보물이 들었을 것으로 보고 석탑을 무너뜨렸다. 반면 대웅전의 주춧돌은 울산에 정유공장이 건설되면서 땅을 매립하기 위해 석축을 쌓을 때 사용했다.

석탑 앞에 있는 돌거북 역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이 돌거북이 언제, 누가 파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돌거북의 경우 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거북의 형태마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축선사

대암담에 묻혀 있는 축선사는 신라 통일외 주역 김유신 장군을 위해 만들었던 사찰이다.

『삼국유사』는 축선사 건립과 관련 이런 기록을 남겨 놓고 있다.

〈36대 해공왕 때 김유신 공의 무덤에서 홀연히 선풍이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준마를 탔는데 김유신 장군의 모습 이었고 또 의갑과 기갑을 차린 40명이 장군의 뒤를 따라 미추왕릉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 능 속에서 큰 진동이 들려왔는데 듣기에 따라서 그

소리는 사람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호소하는 말같이 들리기도 했다.

김유신은 이때 미추왕에게 “신은 평생 나라를 도와 국난을 물리치고 국내를 통일하는 공을 세웠고 지금은 혼객이 되어서도 나라를 누르고 지켜 재앙을 물리치고 국난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잠시도 변함이 없는데 지난 경술년(혜공왕 6년)에 신의 자손이 죄없이 주검을 당하였으니 이는 군신이 모두 나의 공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는 국사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아소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미추왕은 “나와 공이 이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공은 종전과 같이 노력하라”고 세 번이나 청해도 김유신이 듣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혜공왕이 놀라서 신하인 김경신을 김유신 무덤에 보내어 사죄하고 공을 위해 공덕보전 30결을 내려 공의 명복을 빌게 했는데 이 절이 축선사다.》

이 글에서 김유신이 화를 낸 것은 그의 손자 김용이 혜공왕 때 모반죄로 참형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축선사는 울주군 삼동면 둔기와 하잠 부락 일대에 걸쳐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대암댐에 수몰되었다. 둔기와 하잠에는 옛날부터 영산 신(辛) 씨들이 많이 살았다. 따라서 절은 비록 물에 잠겼지만 신씨들 사이에 축선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전해 왔다.

마을 사람들은 축선사 터가 물에 잠기기 전까지만 해도 사찰 터에는 탑 편과 불상들이 많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사찰에

특히 불상이 많았다면서 “옛날부터 축성들에는 흙 한 줌을 파면 불상을 하나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아마 축선사가 오백 나한을 모신 사찰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라시대부터 내려왔던 축선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울산에는 사찰이 많았는데 이들 사찰이 그때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각 지역에서 의병과 승병이 일어나면서 일부 사찰들은 군사령부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왜병들은 많은 사찰을 불을 질렀다.

특히 축선사가 있었던 둔기 마을에는 의병들이 많이 주둔했기 때문에 소실의 가능성이 높다.

축선사가 수몰된 것은 1960년대 초 울산이 공업도시가 되면서다. 이 때 정부는 울산공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둔기와 하잠 마을 일대에 대암댐을 건설했다. 축선사가 수몰될 당시만 해도 울산지역에 문화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정부의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암댐의 건설로 귀중한 문화재가 사라졌지만 당시 이것을 문제 삼은 정부 관계자들이 없었다. 주민의식에도 아쉬움이 있다.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은 축성들에 유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들의 소중함을 몰랐다.

대암댐은 축선사의 전설도 축성들의 유물도 모두 물속에 잠기게 했다.

아름다운 문수산을 파헤치고 귀중한 유물들을 삼킨 대암댐은

그동안 울산공단에 용수를 제공하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이후 50여 년간 한 번도 밑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푸른 물만 출렁이고 있다.

청송사

청송사는 문수산에 있었던 사찰 중 의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청송사는 앞에서 언급된 문수사, 망해사, 영축사, 축선사와 달리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이 없다. 대신 『동국여지승람』과 『울산읍지』에 잠시 언급된다.

청송사지에서 유명한 것은 보물 제382호로 지정된 탑이다. 2층 기단에 3층 탑신을 올려 쌓은 전형적인 신라 탑의 형태인 이 탑은 탑신석에 우주만 모각되어 있을 뿐 다른 조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탑은 하층 기단이 상층 기단에 비해 심하게 낮게 조성된 것과 상층 기단 받침이 상층 기단 면석과 같은 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62년 이 탑을 해체할 때는 상층기단에서 청동사리함의 발견되었는데 사리함 안에는 청동여래입상을 비롯해 유리, 수정, 옥 등 30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 이들 유물들은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기록이 부족해 옛 절의 형태를 아는 것이 쉽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찰의 크기를 두고 ‘10당 15방’ 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당이 10개 그리고 암자가 15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탑도 현재 하나뿐이지만 옛날에는 7개가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절터 인근에서는 탑 편과 불상 등 아직 유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탑을 해체·복원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도굴한 후 그때까지 탑이 허물어져 흙 속에 기울어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승탑군 역시 청송사지의 자랑이다. 승탑은 석종형으로 조선시대 세워진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절이 세워진

● 청송사 3층탑



연대를 신라시대로 보기 때문에 승탑군은 절 창건 훨씬 뒤 조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승탑군에는 조선 조 청송사에서 주석했던 고승들의 사리가 안치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그동안 도굴되어 옛 모습이 아니다. 승탑군을 보면 처음에는 4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2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2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파괴된 것은 남쪽에 있는데 이 승탑은 기단 위 중대석만 남아 있다. 그리고 중대석 중앙에도 굽은 금이 가 있다.

조선 조 말 감목관으로 울산에 왔던 홍세태의 시 ‘염포의 봄’을 보면 청송사가 언급되고 있어 청송사가 임진왜란을 지나 조선 조 말까지 법등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송사지에는 인근에 또 오래된 차나무들이 많이 자라 울산 차인들이 봄이 되면 이 차 잎을 제다 해 차를 마시곤 한다.



5월 기행

입화산



최제우 유허지 -
길촌마을 - 참살이 숲



입화산

(立火山)

입화산은 중구 다운동과 유곡동 뒤쪽에 걸쳐 있으나 다운동 쪽에 더 치우 쳐져 있는 산으로 남쪽에는 1960년대 후반 성황을 이루었던 다운목장이 있었고, 지금은 그 아래 삼성정밀화학(주) 등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대규모 첨단과학연구단지 를 이루어 올산테크노파크가 형성되었다.

동천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지역의 울산만 부근과 북구 신명동에서 시작하여 남으로 뻗은 동남해안선 연안부는 평균 고도 100m 내외의 야트막한 해안 저구릉(低丘陵)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동천강 서쪽인 입화산도 고도 203m의 야산에 불과하다.

입화산은 이름부터 ‘불꽃을 세우는(立火)’ 산이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이 산에서 촛불을 켜 놓고 기도를 하면 다른 산보다 영험이 있다고 하여 소원성취의 촛불이 꺼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일제는 침략 당시 우리 민족혼을 말살시킨 후 오래도록 지배 하겠다는 의도로 울산 사람들이 신성시하며 기도하는 입화산의 정기를 끊으려 1920년경 산 정상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이 말뚝은 해방과 함께 울산의 유지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입화산의 동남쪽 유곡동에는 천도교 성지인 수운 최제우 선생의 유허지(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2호)인 예수바우골이 있고, 그 옆으로 동쪽은 유곡천(裕谷川), 서쪽은 명정천(明亭川)이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 태화강에 합류한다.

입화산은 참살이 숲이 조성되어 야영장을 비롯하여 울산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정상에서는 중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족 단위의 도심 속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이곳에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 입화산

입화산에는 동식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식물은 총 56과 94속 119종이나 된다. 교목의 경우 소나무, 곰솔,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리기다소나무, 편백나무, 대나무, 은사시나무, 사방오리나무, 밤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등이 있다.

관목의 경우 진달래, 철쭉, 병꽃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참싸리 등이 있으며, 초화류의 경우 고사리, 관중, 고비, 뱀딸기, 양지꽃, 제비꽃, 참취, 삽주, 개망초, 우산나물, 쑥 등이 자라고 있다. 특히 관중은 산지의 나무 그늘에 잘 자라는 식물로 입화산 곳곳에 무리지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귀화식물은 환삼덩굴,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아까시나무, 개망초, 서양민들레 등 6종이 서식하고 있다.

동물은 청설모, 산토끼, 고라니, 꿩이 있다.

최제우 유허지

최제우(崔濟愚, 1824~1864)는 조선 말 외세의 침략과 봉건 사회의 모순에 반대한 종교였던 동학(東學)의 교조(敎祖)이다. 호는 수운(水雲)이고, 병자호란 때 명장 증병조판서 정무공(貞武公) 최진립(崔震立 : 1568~1636)의 후손으로 경주시 현곡 출신이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 장사를 하거나, 의술(醫術)과 점술(占術)에 관심을 보여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

냈다. 참된 도를 구하려는 수운의 노력은 양산, 울산, 경주 지방에서의 수련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860년 4월 5일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포교를 시작하여 1863년에는 경상도,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에까지 교세를 펼쳐 신도가 3천여 명, 지방 종교조직인 접소(接所) 13개소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나 고종 원년(1864) 좌도난정(左道亂正:조선 시대 유교(儒敎) 이외에 도교나 불교 따위의 다른 종교로써 유교의 가르침과 법도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 백성들을 현혹시키거나 나라의 정치를 문란케 하는 일)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대구에서 처

● 수운 최재우 유허지



형당했다.

울산은 부인 박 씨의 고향으로, 수운은 이곳 ‘여시바윗골’에 초가집을 짓고 수련을 계속하던 중 1855년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천도교에서는 ‘을묘천서(乙卯天書)’라고 부른다.

현재 이곳에는 1997년 천도교에서 세운 ‘천도교 교조 대신사 수운 최제우 유허비(天道教 教祖 大神師 水雲 崔濟愚 遺墟址)’와 1999년에 세운 비각이 있다.

천도교의 기본교리는 ‘인내천(人乃天)’에서 출발한다. 인내천은 모든 사람을 한울님으로 보고 본래의 내가 곧 한울님이고 내 마음의 근본인 것이라는 교조를 갖고 있다. 본래의 나를 깨달아 얹어 인내천이 되는 것이다.

시천주(侍天主)는 사람은 물론 이 세상 만물이 그 생명체의 몸 안에 한울님을 ‘모신다(侍)’는 체험적인 신앙을 내세운다.

『용담가(龍潭歌)』 제 3절에서 밝히기를, ‘무극대도는 말없는 말에서 도(道)를 얻는다는 의미로서 글과 말의 한계를 벗어난 위(上)가 없는 무한히 큰 진리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무극대도는 곧 동학이다.

을묘천서 사건

1863년 『비변사담록』과 『고종실록』 1권, 12월 20일 기사에는 수운이 5~6년간 울산에 기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에는 신도들이 최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이 5~6년 전 울산으로 이사 가서는 무명을 사고팔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경주 용담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무렵 정성을 다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공중에서 책 한 권이 떨어지는 것을 얻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공중에서 떨어진 책 한 권이 ‘을묘천서’ 라고 말한다.

수운은 1854년 울산의 원유곡동의 처가로 와서 수도생활을 하였다. 1855년 을묘년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는 한 스님으로부터 기이한 책 천서(天書)를 받는다. 당시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다.

〈을묘년 봄잠을 즐기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밖으로부터 주인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 노스님을 초당에 모셨더니 책을 한 권 내놓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흘 뒤 선생이 그 책의 내용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부디 책의 내용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

수운으로부터 시작된 동학은 1894년 갑오년 음력 정월 10일 새벽, 첫닭이 울자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맨 녹두장군 전봉준이 일으킨 농민혁명을 비롯하여 1919년 울산지역의 3·1독립만세 운동에는 천도교 정신이 있다. 또 의암 손병희의 셋째 사위인 방정환(方定煥)이 천도교 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1923년 ‘색동회’를 통해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는 것도 수운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고종 44년(1907) 7월 11일에 비로소 ‘동학의 거두 최제우와 최시형의 죄명을 취소하라’는 어명에 따라 순종 원년(1904)에 사면되었다.

신하들이 “모든 것을 일신(一新)하는 때를 당하여 상서로움과 화기를 이끌어오는 입장에서는 참작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명을 특별히 지워서 용서해주기를 바라면서 폐하의 재가를 바랍니다.” 하니 순종은 윤허하였다. 동학은 왕위가 바뀐에 따라 민심을 사기 위한 순종 정부에 의해 사면 조치를 받은 것이다.

천도교의 성지인 이곳에서 기도생활을 한 수운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서는 백성의 소리였다. ‘인간평등주의 사상’이 움튼 여시 바위골인 이곳은 어느 곳에 비할 바 없는 귀한 성소이다.

기타 명승지

귀신고래바위

울산 중구 유곡동 길촌 마을 안 도룻가에 있는 이 바위는 높이 40cm, 길이 120cm 크기로 귀신고래가 바다에서 수면 위로 머리를 비스듬히 내밀고 있는 형태가 되어 ‘귀신고래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 바위는 수면위에 고개를 내민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피부색과 등에 붙어 있는 따개비와 같은 얼룩무늬까지 닮아 있다.

귀신고래는 수염고래류 가운데서 가장 연안에서 생활하여 ‘연오랑과 세오녀’의 얘기에서 움직이는 바위로 묘사되어 있으며, 암초가 많은 연안 바위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래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통과하는 아종과 한국을 통과하는 아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이들이 통과하는 울산울산을 비롯한 동해안 연안을 천연기념물 제126호 ‘귀신고래 회유면’으로 지정했다.

국제적으로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발



● 귀신고래바위

견된 귀신고래바위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이 바위를 알맞은 곳으로 옮겨 고래도시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지만, 길촌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범이 개를 쫓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범바위’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또 이 바위를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 왔으며 이 때문인지 이 바위가 동네를 지켜주어 요즘도 길촌 마을에 도둑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길촌마을 보호수 곶솔

울산광역시 전역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향토수종으로 길촌 마을에 있는 곶솔은 수령이 200년 정도 되었으며 나무 둘레가 2.4m의 수형이 양호한 노목이다. 2009년에 중구청에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당산나무이다.

● 길촌마을 곶솔



당산나무와 함께 길촌 제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시멘트로 지어진 한 칸 건물인 제당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매년 정월 대보름에 제를 지낸다.

산림욕장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가족 단위의 힐링 공간인 참살이 숲 야영장과 연계하여 입화산의 편백나무 숲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치유와 함께 여가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이다. 편백나무 숲 7ha, 숲 속 도서관 1개소, 산림놀이 시설, 동화가 있는 숲길 및 포토존,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등을 갖추고 있다. 또 20~30년생 편백나무 숲 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독서를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숲 속을 걸으며 숲 속 자연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화가 있는 숲길에는 가족 모두에게 꿈과 희망,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자연과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

입화산 참살이 숲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숲 속의 자연과 어우러진 야영장을 비롯하여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모험 놀이·체험 시설인 네티쳐스포츠와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썰매 타기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

족이 함께할 수 있다.

사계절 다양한 꽃과 곤충들과 함께 하는 나무 학습장, 습지 관찰원이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 및 주변 편백나무 숲, 시와 노래비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함께 공존하는 감성 공간이다.

시와 노래가 있는 길

산책로를 걸으면서 시와 노래를 읽고 부를 수 있는 공간으로 김춘수의 ‘꽃’, 박목월의 ‘나그네’ 등 우리나라 대표 시 5점과 ‘타향살이’로 유명한 고복수 등 울산 출신 작가의 작품 8점이 설치되어 있다. 길 끝 나무 학습장까지 여유롭게 걸으면서 한 번씩 훑어보는 시와 불러보는 노래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 시와 노래가 있는 길

나무 학습장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학습장은 여러 가지 나무들의 껍질을 직접 만지면서 느껴 볼 수 있는 나무 옷 만져 보기와 고무망치로 두들기면 나무 특유의 소리가 나는 나무실로폰, 나무의 단면을 보고 나무의 나이를 공부할 수 있는 나무 나이테 책장 등

이 있어 자연생태를 학습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대나무 숲 체험장

대나무 숲 체험장은 시와 이야기가 있는 길을 따라 여유롭게 걷다 보면 나온다. 이 체험장은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며, 대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청량한 대 바람이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댓잎들의 소리를 들으면 도심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다.

마른 댓잎들의 폭신한 느낌은 도심 속 콘크리트를 밟는 것과는 전혀 색다른 느낌을 준다.

치유의 길

걷기와 함께 명상을 즐기는 곳으로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편백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길로 삼림욕 체험이 가능한 힐링 공간이다.

특히 편백나무 숲 속으로 난 오솔길을 명상을 하듯 걷노라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치유의 길 끝에는 전망대가 있어 마음속 스트레스를 한 번에 털어내 버릴 수 있다.

네이처 스포츠

자연과 함께 하는 놀이체험 공간으로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모험 놀이, 체험시설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며 즐길 수 있다.

모든 체험시설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로 만들어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며 각 체험시설 주변에 설치된 트리하우스(전망대)는 체험시설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어린이들과 함께 놀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참고 문헌

『울산지명사』(1986) 이유수, 울산문화원 · 울산시

『울산의 문화재』(201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입화산 참살이 숲 홈페이지



6월 기행

마골산



물방골 - 쇠평재 -
반티밑골 - 장군바위 -
동축사 - 망조당 묘소



마골산

마골산은 영조 25년(1749)에 간행된 『학성지(鶴城誌)』 등 여러 울산읍지에 나타난다. 마골산은 목장의 주룡산(主龍山)이다. 동대산의 끝자락에서 남쪽으로 모래부리(砂角:산의 고어)의 골(谷)은 점점 깊게 열려 절로 특별한 형국을 이룬다. 산면이 모두 흰 돌인데(층을 이루는 줄이 삼의 겨릅대 같기에 부르는 이름이다) 산 위에 동축사(東竺寺)가 있으며 뒤에 바위들이 모여 서 있는 것 같은 곳에 예나 지금이나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고로 횡계(橫溪) 정훈수(塤叟)와 만양(萬陽) 형제가 ‘일관대(日觀臺)’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 글자를 바위 면에 세기지 않아서 비에 씻기어 마멸되었다) (麻骨山 牧場主龍東大山之盡處 南邊砂

角稍豁 自作別局 山面皆白石(層列如麻廩 故名焉) 山上有東竺寺
(詳寺刹) 寺北有巖叢立 (今古人)望日出者 皆上此石 故橫溪鄭墳叟
萬陽兄弟名以日觀臺(三字於石面未刻 雨洗磨滅)

요즘은 일관대를 관일대(觀日臺)라 부른다.

마골(麻骨)이라 함은 삼(麻)대를 벗기고 남은 줄기를 한자(漢字)의 뜻으로 표기한 말이다. 삼대를 ‘겨릅대’ 또는 ‘저릅대’ 라고 부르는데 이를 한자를 빌어 소리대로 적은 것이 ‘계립재(鷄立嶺)’이다. ‘계립재(鷄立嶺)’를 ‘새밭재’라고도 부르는데 한자의 표기는 인근의 여러 묘갈에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새밭재를 ‘鳥田嶺·新田嶺·三所基·鷄立嶺’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 두(吏頭) 표기가 난해함을 말해준다.

동축사 뒤편 동대에 ‘일관대(日觀臺)’라는 이름을 붙인 횡계(橫溪) 정훈수(鄭墳叟)와 만양(萬陽) 형제는 영천사람으로 평생 학문을 닦고 심신을 수련하면서 과거에는 나가지 않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데만 심혈을 기울였던 조선 후기(1664~1730)의 유학자들이다. 이들은 동축사에 왔다가 시를 남겨놓기도 했다.

남목마을의 지명유래

남목 마을 이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山川)조’와 ‘봉수(烽燧)조’에 남목천(南木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정조 때에 이르러 남목 마을은 ‘남옥리(南玉里)’와 ‘한채(大鞭)’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채(大鞭)’는 큰 마을의 뜻으로, 한자를 빌어 국어처럼 쓴 이두(吏頭) 표기이다.

순조 10년(1810)의 호적대장에는 ‘남목’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옥류천을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서 동부리와 서부리로 나누어진단다.

‘한채리’는 서부리에 속하던 마을인데, 현대중공업에 편입되었고 ‘한채 사거리’라는 이정표만 남아있을 뿐 옛날 이곳에 ‘한채’라는 마을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동구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군사용 병마(兵馬)를 기르던 국영목장 지역인데 목장의 관아(官衙)가 몰려 있던 곳은 지금의 남목초등학교 주변인 서부동이다. 울산목장의 감목관은 장기(長鬚)에 있는 동을배곶(冬乙背串)목장 두 곳을 맡아 관장하였다.

철종 12년(1861)의 『울산·장기 양목장리폐절목』에는 장기목장을 북목(北牧)이라 하고, 울산목장을 남목(南牧)이라 하는 것을 보아 예전부터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1530년 『승람』에는 ‘남목천(南木川)’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의 중세 어휘로 대입해 보면, ‘암나모골’이 된다. ‘암나모’의 뿌리 말은 ‘감나무골’인데, 남목에는 ‘감나무골’의 지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 ‘남목(南木)’은 감나무골의 이두식 표기가 아닐까도 싶다. 그 외에도 남목은 ‘南木, 南玉, 南牧, 藍田’ 등의 애칭이 있다.

남목 마을은 동축사가 있는 마골산의 산림과 주변 쇠평산의

숲과 계곡이 잘 어우러져 계곡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식생의 장이 펼쳐진 감나무골에는 수림과 산야초들이 많다. 현대조선소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야산의 산주들에게는 송이버섯이 짝짤한 수입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산에 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산지기를 두기도 했다.

나무장사와 복어 알 이야기

옛날 남목 주변 사람들은 산에서 땀감을 해 방어진 시장 나무 전까지 이고, 지고 가서 팔아 그 돈으로 자녀들 학비와 가용 돈으로 쓰기도 했는데, 여자들은 나뭇단을 이고, 남자들은 지고 다녔다.

또 소달구지가 있는 집에서는 여러 동치의 나뭇단을 소달구지에 싣고 다녔는데, 옛날 옛적의 ‘감나무골 나무장사와 복어 알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 온다.

어느 날 모 씨는 여느 때처럼 소달구지에 몇 동치의 나뭇짐을 싣고 방어진 시장(장터걸)에 가서 나무를 팔고는 구충제에 쓰려고 독성이 많은 복어 알을 두어 줄 얻어다가 지게 가지에다 묶은 후 지게를 소달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묶어 놓고는 시장통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다.

한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다 보니 어느 새 해는 기울고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 소달구지가 없지 않은가?

시장 사람들이 보니, 빈 소달구지는 소가 끌고 신작로 길을 따

라 어디론지 가더란다. 소가 문제가 아니라 소달구지에 실려 있는 북어 알이 문제였다.

집으로 달려오는 길은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인데, 이를 펼쳐 놓으면 지금의 직선 도로의 갑절은 될성싶은 길이었다. 그것도 걸어서 방어진에서 목장고개를 넘고, 월봉골, 일산 번덕말, 산성 마을을 지나 오자불, 바드레, 녹수구미, 명덕마을, 낙화암이 있던 대추밭 골, 돌치계, 홍문들을 거쳐 남목 감나무골의 집으로 허겁지겁 들어서니 소등에서 이미 달구지를 끄는 멍에는 내려지고, 소는 마구간에서 쉬고 있었다.

“지계에 매달린 생선의 알은 어디에 치웠느냐”고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다. 이미 국을 끓여서 식구들은 모두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 설거지까지 마쳤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 있었다. 일순간의 잘못으로 온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 나도 먹고 같이 죽자 싶었다. 저녁밥을 차려오도록 하여 알국을 실컷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통 잠은 오지 않고 뜯눈으로 날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날이 다 새도록 가족들은 아무 탈이 없었다. 그때서야 아내에게 이실직고를 하고, 조리할 때 무엇을 넣었는지 알아보니, 어제 뒷산에서 뜯어온 산나물을 넣고 국을 끓였단다. 산나물이 많아 아직도 바구니에 남아 있어 이를 살펴보니 산삼 잎이 섞여져 있지 않은가? 산삼 잎이 북어 알의 독을 해독시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령한 약초가 사람을 살렸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남목 야산에 신비한 약초들이 옛날부터 많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마골산 주요 유적들

남목의 마골산 산정에는 신라 진흥왕 34년(573)경에 세워진 동축사(東竺寺)가 있다. 그 주변으로 불당골 마애여래입상,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망조당 서인충의 묘소, 한 줄기가 뺨어 나간 봉대산에 남목천 봉수대(현, 주전봉수대), 신·구마성(馬城) 유적, 호랑이를 잡아 벼슬을 했다고 기록된 착호비(捉虎碑), 감목관들의 선정비와 유하 흥세태의 수십 편 시가 남아 있다.

동축사(東竺寺)

동축사 창건설화는 『삼국유사』 '황룡사 장육(丈六) 조'에 전한다. 신라 진흥왕 24년(573) 3월 하곡현 사포(絲浦)에 큰 배가 닿았는데, 현리(縣吏)가 조사해보니 서축국(西竺國:인도) 아육왕이 보낸 황철 57,000근, 황금 30,000푼과 첩문을 싣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니... 아육왕(아쇼카)은 천하를 평정한 뒤 불문에 귀의하였고, 그 후 참회의 뜻으로 팔만사천의 대보탑을 세우고 대작불사를 하였다.



● 동축사

그 후 불상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세 번이나 실패하였다. 왕은 인연이 없음을 깨닫고 황철과 황금과 일불 이 보살상(一佛, 二菩薩像)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고 인연이 있는 나라에 가서 불사가 이루어지길 빌었다.

이 배는 1,300여 년 동안 16 대국, 500 중국, 7,000 소국, 10,000 부락을 거쳐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이 하곡현 사포였다. 이를 보고받은 진흥왕은 황철과 황금은 서라벌로 운반하여 황용사에서 장육존상을 조성케 하고 이 고을 동쪽의 높고 깨끗한 땅을 골라 동축사를 짓게 하였다.

동축사는 경순왕 2년(928)에 증건, 고려 정종(1035~1045) 때 재창하였으며, 조선 세조 3년(1457)에 다시 증건하였다. 그 후의 기록이 없어 본래 동축사의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지금의 동축사는 조그만 암자였다고 한다. 현대중공업 건설 후인 1970년대 후반에 사찰의 규모를 확장하여 증건을 보게 된다. 이것이 지금의 동축사이다. 동축사를 시제로 홍세태가 지은 시가 다수 전하는데 이 중 하나를 소개한다.

東竺寺

非來西竺此何峰 千里行如赴海龍
絕頂影懸羅代塔 中林響出梵王鐘
黃金布地開眞界 白月當空示法容
永夜隔窓眠不得 怒濤澎湃雜風松

동축사

西竺에서 날아와 어느 봉우리에 내렸나
천리 길을 용왕 앞 가듯 달려왔구나.
산꼭대기에 걸려있는 신라 탑 그림자
숲 속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범종 소리
황금을 땅에 깔아 참 세계가 열렸구나.
하늘에 걸린 달은 부처님 얼굴이라

긴 밤 창가에서 잠 못 이루는데
성난 파도 소리가 솔바람에 뒤섞이네.

관일대(觀日臺)

동축사 뒤 바위 언덕을 ‘동면 8경’ 이나 ‘방어진 12경’ 에는 ‘섬암(蟾巖)’ 즉 ‘두꺼비바위’ 라는 뜻의 한자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유하 홍세태의 시에는 절의 동쪽 대라는 뜻의 ‘동대(東臺)’ 라 하여 여러 편의 시가 전해진다. 조선 후기의 선비 정만양(鄭萬陽)형제가 이곳에 와서 ‘일관대(日觀臺)’ 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는 기록이 『학성지』에 전한다. 이 대에 오르면 정면에 ‘부상효채(扶桑曉彩)’ 라는 글씨가 힘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좌측에는 ‘원유



● 관일대

영(元有永)이라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 보이는데, ‘원유영’은 낙화암의 석벽에 시를 쓰고 이곳 감목관을 지낸 사람이다.

부상효채(扶桑曉彩)

‘해 돋는 새벽의 찬연한 광채’란 뜻일 테지만, ‘부상(扶桑)’이란 중국신화 속에 나오는 열 개의 태양이 매달려서 살고 있다는 신성한 신목(神木)이다. 이 신화는 중국 요임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방의 천제(天帝)였던 ‘제준’과 그의 아내 ‘희화(羲和)’ 사이에 열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태양’으로, 동방의 바다 밖 흑치국의 북방에 있는 ‘탕곡(湯谷)’에 살고 있었다.

탕곡의 바닷물은 열 개의 태양이 목욕을 하기 때문에 늘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그 가운데 ‘부상(扶桑)’이라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높이와 둘레가 수천 길이나 되며 여기에 태양이 거주하고 있었다. 열 개의 태양 중 아홉 개는 윗가지에 나머지 한 개는 아래 가지에 사는데, 그들은 일정한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하늘에 뜨곤 했다. 그들이 하늘에 떠오를 때는 늘 어머니 ‘희화(羲和)’가 수레에 태워주곤 했기 때문에 비록 열 개의 태양이 있었지만 인간 세상에 뜨는 해는 한 개뿐이었다.

‘부상(扶桑)’의 꼭대기에는 일 년 내내 ‘옥계(玉雞)’라는 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매일 동이 틀 무렵이면 날개를 퍼덕거

리며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가 울면 도도산(桃都山)의 거대한 북송아나무에 살고 있는 ‘금계(金鷄)’도 따라서 울게 된다. 이 소리에 황야에서 떠돌아다니던 영혼들은 황급히 도도산으로 돌아가 귀문(鬼門)에서 신도(神荼)와 울루(鬱壘) 두 형제의 검열을 받는다.

금계가 울면, 그다음에는 각지의 명산대천에 살고 있는 ‘석계(石雞)’들도 따라서 울며, 석계가 운 다음에 천하의 모든 닭이 따라서 울게 된다. 이때가 되면 잔뜩 붙어 있던 바닷물도 닭의 울음에 따라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게 되고, 어머니 희화의 손에 말끔히 씻겨진 태양도 바로 그 바다와 하늘 가득 펼쳐져 있는 노을 속에서 광염(光焰)의 자태를 뽐내면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태양은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희화가 이끄는 대로 하늘과 땅 사이의 광활한 공간을 질풍같이 달린다.… 이처럼 찬연히 펼쳐지는 해 뜨는 일출 광경을 담은 “부상효채(扶桑曉彩)”라는 힘찬 글씨체가 바위와 잘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대에 올라 일출을 보다(登東臺觀日出)

擡頭海欲窄 고개를 들어보니 바다는 넘치려 하고

海外一天長 바다 밖은 하늘에 닿았네.

誰洗黃金輻 누가 황금 바퀴를 씻었는가

爲扶暘谷桑 동쪽의 탕곡이 씻었다누나

雲橫初礙馭 구름 가리어 길을 못 찾겠더니

風撤忽騰光 바람이 불어와 홀연히 밝아오네.

壯觀吾能辨 장엄한 경치를 보려면

何須駕石梁 석량 같은 동대에 올라야만 하나 (송수환 역)

망조당 서인충 묘소

서인충의 묘소가 있는 산을 등잔걸이라 한다. 공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모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남목 출신의 주사장(舟師長) 망조당(望潮堂) 서인충(徐仁忠) 장군이다. 남목시장 주변에 그가 어릴 때 무예를 익히며 놀던 곳에 ‘망조대’란 표지석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기타 남목의 주요 지명

물방골 옥류천 이야기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서편의 ‘절골짜’에서 흐르는 개울과 감나무골의 개울물이 합류하는 곳으로 물이 많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알바위터 성혈(性穴)유적지이다.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가족이나 부족 공동체의 염원을 담아 하늘에 기도하던 장소로 여러 바위 표면에 성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기쟁이집골 사기그릇을 굽던 장인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이

란 뜻으로,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있던 곳이다. 이곳에는 청자의 파편과 그릇을 구울 때 받침 역할을 하는 기구인 ‘도지미’가 여럿 출토되었다.

내매기 세장(細長)한 길을 ‘목(項)’이라 하는데, 한 골짜기의 끝에 있는 ‘외매기’와 바람골과 쇠평골을 가르는 산등성이인 ‘내매기’가 있다.

바람골 내매기의 서쪽 골짜기를 이르는 말이다. 이곳엔 항상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골’이 되었다는 지명 유래가 전하지만, 어원은 산의 안쪽을 일컫는 지명으로 「발(山) + 안(內) + 골(谷)」인데, ‘발안골’의 음전으로 현재의 지명 바람골로 고착되어진 것으로 본다.

범무골 ‘뺨은 물골’이 변한 말로 보고 있다.



● 장군바위

가재골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의 뜻을 담고 있다.

한골짜 ‘큰 골짜기’의 옛말이다.

층계돌 한골짜 입구에서 동축사로 오르는 길에 층암으로 된 돌계단이 있었다. 이 계단을 오르면 동축사에 이른다. 이곳은 자연으로 된 바위계단으로 층계돌이라 부르는데 지금은 무너지고 이름만 남아 있다.

장군바위(메뚜갈들) 동축사 서남쪽 ‘새받재’로 가는 길가에 있는데, 장수 발자국 터와 함께 ‘아들과 딸을 낳는 비결과 염원을 기원하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바위이다.

장수발자국터 장군바위 북쪽에 있는 바위로 위에 장수발자국터가 새겨져 있다.

관음정 이 바위 위에는 움푹 패여 방아처럼 확을 이루고 있



● 관음정

어서 이를 우물로 미화시켜 부르는 이름이다. 관음은 불가의 언어로, 관세음보살의 준말이다.

절골짜 동축사를 오르는 계단 좌측의 골짜기를 ‘절골짜’이라 부르는데, 이곳에 약수터가 있다.

다듬이돌 공부암은 광무 6년(1902)에 만들어진 『울산읍지』 ‘불우(佛宇) 조’에 몇몇 바위 이름들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보면, 절의 동쪽에는 택미암·송급암이 있고, 서쪽에는 공부암·족적암·침석암, 남쪽에는 대유잠(大庾岑), 북쪽에는 관음정(觀音井)이 있다(東竺寺在南玉北上數里…;有東擇米巖, 松給巖 西有工夫巖, 足跡巖, 砧石巖 南有大庾岑 北有觀音井)고 전하나 토박이 주민들에게는 이미 실전(失傳)된 지명들이다. 최근 위 지명들은 읍지(邑誌) 등을 근거로 필자 등이 수일에 걸쳐 탐방



● 다듬이돌

한 결과 모두 읍지의 기록과 같이 절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옥류천 상류 도린자기(재)를 경유해서 동축사에 오르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불당골 마에여래입상과 착호비석 등을 만나고 해골바위, 논골약수터, 송곳바위 등을 만나는 산책로 등도 있다. 쇠평재를 올라 남근바위, 거북바위와 범발재, 수락암, 구 마성이 있는 성골, 쇠평마을 등도 마골산 주변에 있다.



● 해골바위

마골산 산정 코스

1 큰골새 → 자갑산 → 가사골 → 솔돌, 검바위 → 장수살구돌 → 작은두꺼방 → 솔두배기 → 북만디이 → 다듬이돌(砧石岩) → 공부암(工夫岩) → 수리바위 → 족적암 → 투구바위 → 큰두꺼비바위 → 휘양바위 → 새발재 → 국방만리 → 해골바위 → 장적암(掌跡岩) → 고동방 → 촛대바

위 → 추암(송곳바위) → 무적골(남목고교)

❷ 쇠평 → 내매기 → 거북바위 → 남근바위 → 처녀바위 → 발안골
→ 범발재 → 쇠피이재만리 → 머리진 바위 → 달구바위 → 성골재 → 쇠
평마을 → 수목원 → 약대번데기 → 소직골(쇠피이재)

❸ 물방골 → 소직골 → 알바위터 → 쇠평재 → 사기쟁이집골 → 움턱
골 → 송구방골 → 반티밀골 → 내매기 입구 → 바람골 → 범무골 → 안
등당뺨디기 → 가재골 → 밤나무밭골 → 한골짜 입구 → 칭계돌 → 장군
바위(메뚜갈돌) → 장수발자국터 → 동축사 → 관일대 → 관음정(觀音井)
→ 절골짜 → 다듬이돌, 공부암 → 약수터 → 망조당 묘소(등잔걸) → 출발
점(물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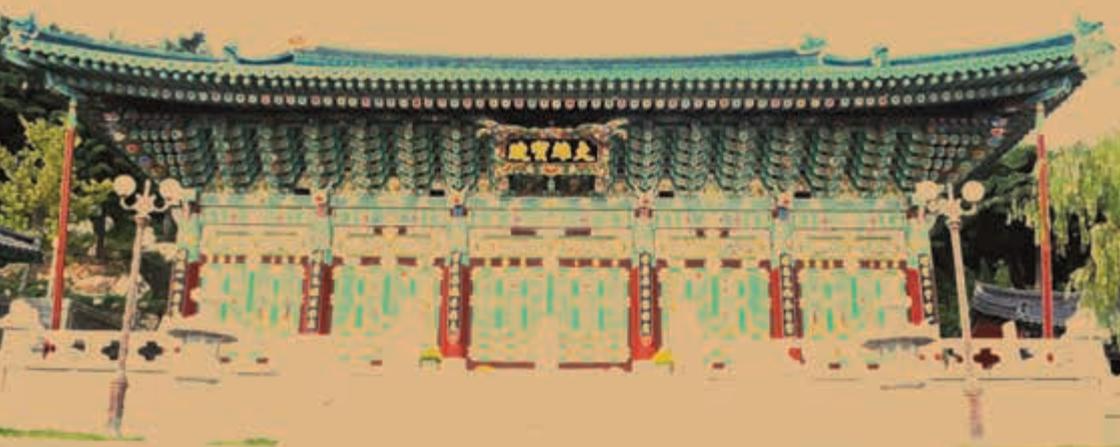


7월 기행

함월산



술뭇 - 백양사 - 함월루



함월산

(含月山)

함월산은 문수산 무룡산과 함께 울산을 상징하는 산이다. 울산에서 보면 문수산은 서쪽에, 무룡산은 동쪽에, 함월산은 북쪽에 있다. 함월산은 다른 산처럼 장엄하지도 높지도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부터 함월산을 성산이라 불렀다.

강원도와 경북을 거쳐 내려온 태백산은 경주에서 일단 낭산과 남산으로 갈라진 후 낭산은 토함산을 거쳐 동대산맥으로 이어지고 남산 줄기는 치솔령을 거쳐 함월산까지 오게 된다.

하늘에서 보면 함월산은 흡사 부채가 펼쳐진 모습인데 그 중앙에 백양사가 자리하고 있다.

풍수지리상 함월산은 명당으로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옛날부터 울산 시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했다.

함월산은 높이가 200m이며 1989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시행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1989년 12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시행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옛 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이 일대가 혁신도시의 중심이 되어 각종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함월산에는 신라 고찰 백양사 외에도 각종 명승지가 많은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양사(白楊寺)

백양사(白楊寺)는 함월산(含月山) 자락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이다. 신라 제56대 경순왕 6년(932)에 고승 백양선사가 신라의 국태민안과 울산고을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숙종 4년(1678) 연부(衍淨)가 중창하였다. 영조 29년(1753) 설인화상이 중건하고 1922년에 비구니 보현(普賢) 스님이 다시 중건하여 1929년 근현대의 고승인 경봉(鏡峰) 스님이 사찰의 주지로 주석하였다.

1945년 칠성각과 산신각을 짓고, 1998년 목산 지은 선사가 주지로 부임하면서 종합중창 불사를 시작하였다. 2001년 설법전과 2002년 선방을 새로 지으면서 2014년 목산 스님이 감로정을 이전 중수하였다.

경내에는 대웅보전, 응진전, 원통전, 명부전, 칠성각, 산령각, 시민선원, 범종각, 유심전, 향전, 희사전, 강로원, 감로정이 있으며, 부처님 진신사리 부도와 백양조사 부도 2기가 있다.

이중 대웅보전은 대리석 연화조각 원형 주춧돌에 배흘림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러 개의 공포가 설치되는 다포



● 백양사 대웅전

식 목재 건물로 지붕 전체를 받쳐주는 대들보 아래로 처마 끝을 길게 내어 부챗살처럼 퍼지면서 살짝 위로 올려진 지붕 모양을 하고 있다.

응진전은 삼간 접집 팔작지붕 다포계 외삼 포집이며 남향이다. 다양한 표정과 형상을 한 십육나한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 두타제일 가섭존자와 다문제일 아난존자를 좌우에 모셨으며, 울산 유형문화재 제25호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있다.

원통전은 본래는 누각이었으나 현재는 시민 선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을 모셨기 때문에 원통전이라는 현판이 걸렸다.

명부전은 대웅전 앞에 있는 전각으로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옥을 출입한 승려 도명존자와 전생부터 지장보살과 인연을 맺었다는 무독귀왕이 협시(脇侍)하고 있다.

칠성각은 맞배지붕에 앞면 3칸, 옆면 1칸 규모로 초창은 미상이고 중수는 조선조 말엽이다. 칠성각 안에는 칠성탱화 좌우에 백양사 창건주 백양조사의 진영과 독성각 나반존자가 있다.

산령각은 한 칸 홑집 맞배지붕 민도리집 홑처마로 지어졌으며, 해방 후 현지에 이전 중수하여 경내 동쪽에 있는 칠성각에서 산 쪽으로 올라간 곳에 자리한다. 안에는 산신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부두는 백양조사 부도와 진신사리 부도가 있다. 창건주 백양선사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서쪽 부도의 높이가 179cm에 몸체는

종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고려 초기 부도로 추정된다. 옥개석과 상륜부를 갖추고 있으나 별다른 문양은 보이지 않고 명문도 새겨져 있지 않다.

이전 중 부도탑 안에서 부처님 사리함이 나왔으나 사리는 없고 청동으로 만든 원통형 사리함이 심하게 부식되어 원형만 남아 있었으나 수거 중 조각이 나 보관 중에 있다. 현재 봉안되어 있는 사리는 미얀마에서 전수한 것으로 진신 사리를 모셨다.

동쪽에 있는 것은 조선 숙종 때의 고승 연부선사의 부도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현재 울산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조아미타삼존불상, 아미타삼존후불홍탱화, 신중탱화, 백양선사 부도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중앙에 아미타불, 왼쪽 협시에는 대세지보살, 오른쪽 협시에는 관음보살로 구성되어 있다. 아미타불은 원래 대웅전 내부 본존불로 모셔 졌으나, 대웅전을 현재의 모



대세지보살상

보존상

관세음보살상

습으로 중창하면서 본존상은 응진전의 본존으로 봉안되고, 양 협시상은 새로운 본존불과 함께 대웅전 좌측 불단에 모셔놓았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의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내린 변형식 편단우견으로 표현되어 있다. 결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수인은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향마촉지인을 표현하고 있으며, 왼손은 아미타수인을 취하고 있다.

협시보살은 큰 보관을 쓰고 있으며, 관음보살은 보관 상단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을, 대세지보살은 정병을 표시하여 각각의 존명을 나타내고 있다. 협시보살의 법의는 변형식 편단우견을 입고 있으며, 표현방식은 본존과 동일하지만 대의자락의 옷 주름은 본존보다 간략화된 모습이다.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에서 발견된 중수기에 의하면 이 삼존불상은 1676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질 상으로 경주옥석(불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경상도 지역에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이다. 전반적인 불교 양식으로 볼 때 17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미타삼존후불홍탱은 먼 바탕에 붉은색을 칠한 뒤 백색 선으로 윤곽을 그린 선묘불화이며 1878년에 제작되었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배치된 아미타삼존도의 형식이다. 아미타불은 연꽃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좌측에는 아미타화불이 표현된 높은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정병을 받

쳐 든 관음보살과 우측에는 보관에 정병을 얹고 경책을 손에 든 대세지보살이 묘사되어 있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화기란을 두어 명문을 기록하였다. 이 불화는 바탕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화면 상부의 구름을 바탕색의 안료와 농도에 차이를 두어 표현하고, 나머지 여백은 먹으로 채색하였다.

특히 붉은색을 칠한 광배와 윤곽선을 제외한 모든 면부에는 문양을 생략하여 장식을 극도로 배제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선묘 불화의 특징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높은 보관을 쓴 보살상의 표현이나 상서로운 하늘과 구름문양의 표현, 전신을 감싸는 광배의 표현 등이 19세기 양식을 대변해주고 있다.

본 작품은 19세기 중 후반경 경상도 및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덕운영운의 말년작품으로 경상도 지역 선묘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다.



● 신중도

신중도는 덕운·영운을 수화승으로 정행과 전호 2인의 화승이 동참하여 1878년에 제작되었다. 신중도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을 묘사한 그림으로, 신중은 원래 고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로, 부처의 설법을 듣고 감화하여 호법선신이 되었다.

불화의 상단에는 주악천인과 동자상이 있고, 그 좌우에는 범천과 제석천을 크게 그렸으며, 각각 좌우에 협시 격으로 일월천자를 비롯한 선신을 묘사하였다. 중앙에는 위태천을 배치하였으며, 새의 날개깃으로 장식한 화려한 투구를 머리에 쓰고 두 손에는 보검을 든 모습이다. 하부에는 무장을 한 호법신중 6위를 배치하였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화기란을 두었다.

채색은 명도가 높은 적색을 주로 사용하고, 녹색과 청색의 사용이 눈에 띄는 편이며, 신체와 복식, 구름 등에 백색과 황토 등 중간색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색조의 화려함에 비해 전체적으로 문양이 억제된 편이며, 위태천과 호법신중의 금속성 지물이나 갑주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금분 혹은 금박의 경우는 황색으로 처리한 점이 눈에 띈다.

본 작품은 기년명과 제작자가 뚜렷하고, 조선후기 신중도의 표현양식과 제작자를 중심으로 한 화풍을 연구하는데 그 가치가 인정된다.

백양사 사역 서쪽 언덕에 위치한 부도는 전각형에 편구형 탑신을 지닌 전형적인 조선후기 부도의 양식을 띠고 있다. 기단부의 하대석과 중대석, 상대석을 비롯하여 구형의 탑신과 팔각의 전각형 옥개석 그리고 상륜을 모두 갖춘 완형의 부도이다.

옥개석은 8각의 지붕 형태로 묘사되었는데, 처마가 매우 두텁게 표현되어 둔중감을 준다. 처마의 전각부 2곳에는 원공이 남아



● 석조부도

있으며, 이는 풍경과 같은 부착물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양사의 창건주인 백양대사의 탑이라고는 전해지나, 신라시대 부도와는 양식적으로 맞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표면의 치석 수법이 거칠지만 단독으로 부도전을 마련하여 건립하였을 뿐 아니라 크기에 있어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이 같은 양식은 조선후기 부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경상도 일대에서 주로 유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타 유적지

성모재

함월산 정상부근인 성안동 865-6번지(함월4길 1)에 남향으

로 있는 초계 변씨 참판공파 울산입향조 정헌대부(卞承貞) 이하 누대의 울산 문회의 재실이다.

우람한 목조건물로 정문을 승덕문(承德門)이라 하고, 경내 동쪽은 선대오현(先代五賢)의 제단과 파조인 변굉(卞紘 : 조선 세종 때의 이조참판)의 사적비 <가정대부 이조참판 초계변공휘굉사적비>가 있고 서쪽은 관리사이다. 비문은 1999년 늦가을 충북대 명예교수 학성인 이수봉(李樹鳳) 박사가 짓고 글씨는 후손 변재건(卞在健)이 썼다.

동쪽(경외) 성안동 865-7번지에는 문중회관인 5층 성모회관(誠慕會館)이 자리하고 있다.

성안동 장군바위

중구 성안동(聖安洞) 함월산 정상의 조금 아래 발둑에는 남쪽



● 성안동 장군바위

신선암(神仙岩)을 바라보고 의연하게 선 한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군바위라 부르며 이로 말미암아 마을 이름 또한 장암이라 한다.

옛적에 남쪽의 선암사(仙岩山)에는 신선바우가 있어 아름다운 선녀와 같았다.

장군바우가 신선바위를 늘 대하게 되니 그만 서로 정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혼담이 이루어져 마침내 신선바위가 있는 곳으로 장군바위는 장가를 들게 되었다.

장군바위는 장롱도 마련하는가 하면, 말도 마련하였고 신부를 태워 올 가마까지 마련하여 놓았다.

장군바위가 장가를 드는 날이 다가와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이때 한 여인이 근처의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다가 보니 무슨 떠들썩하는 기색이 있어 귀를 기울여 보니 다름 아닌 장군바위가 신선바위에 장가든다는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그 여인은 무심중에 “알긋어라! 장군바위도 장개 가는 가배”라 하였다.

이 여인의 한마디 말이 그만 여름철의 서리가 되어 바위는 굳어버렸다. 이때 장군바위는 그 여인을 끌어당겨 그만 깔고 앉아 버린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 장군바위 근처에는 가마바위, 장롱바위, 안장바위 등도 그대로 굳어버려 지금도 장군바위와 더불어 남아 있다.

숯못과 동방삭

중구 새일내 (성안동 옛 지명)의 성안초등학교에서 북쪽의 산등을 한 고개 넘어가면 숯못(炭池)이 있다.

이 못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반티이못(함지못)이라 부를 정도로 작은 못이었으나 지금은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확장되어 못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못은 작으나 여기에는 삼천갑자(三千甲子)를 살았다는 동방삭(東方朔)과 마고(麻姑) 할미의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옛날 중국 곤륜산(崑崙山)에 서왕모(西王母)라는 여선(女仙)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곤륜산(崑崙山)에서 불로불사(不老不死)의 명약(名藥)을



● 숯못

가지고 있었던 신선이었다.

그 선약은 곤륜산에서 자라고 있는 불사수(不死樹)라는 나무 열매로 빚어서 만든 것이며 그 열매는 몇 천 년 만에 한 번 밖에는 영글지 않는 희귀한 것이었다.

그녀의 성은 양 씨(楊氏)요 이름은 회(回)였다. 주(周)나라 초에 목왕(穆王)이 곤륜산에 사냥을 갔다가 서왕모를 만나서 요지(瑤池)에서 노닐며 돌아올 줄을 몰랐다 하며 또,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장수를 원하매, 그녀를 가상히 여기어 하늘에서 선도(仙挑 : 천도복숭아) 일곱 개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작자 미상인 중국 고대의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반수(半人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 다리를 썼다고 되어 있다.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靑鳥)가 있어 그 여자의 먹을 것을 마련하여 준다고 한다. 그녀와 대치되는 중국 전설상의 남선(南仙)이 동왕부(東王父), 또는 동왕공(東王公)이라고도 하는데 시제(詩題)와 화제(畫題)로 유명하다.

서왕모가 산다는 곤륜산 기슭에는 약수(弱水)라 하는 강물이 있으며 이 강물은 끝없이 깊으면서도 길이가 삼천리나 되며 부력(浮力)이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하는 가벼운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강을 건너기가 어렵고 그 강물의 안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창날 같이 솟아 있고 이들 산들이 모두 새빨간 불을 내어 뿜고 있었다.

이렇게 험한 산이 곤륜산이었는데 어느 날 동방삭이 이 산에 숨어 들어갔다.

마침내 해발 1만천 리(里)가 넘는 곤륜산의 정상으로 들어가니 다섯
아름드리나 되는 큰 벼꼭이 우거져 있었고 그 앞에는 개명수(開命獸)가 지
키고 있으며 서왕모는 요지(瑤池)에서 가끔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
들어간 동방삭은 불로불사약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자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부터 동방삭(東方朔)의 장수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전한(前漢)의 상시랑(常侍郎)·태중대부(太中大夫)까지 오르면서
직간(直諫)과 해학(諧謔)·변설(變舌)로 유명하여 무제의 총애를 받았다. 따
라서 궁중에서는 윤희유 역할을 하여 그 말 한마디로 긴장에 싸인 분위기
가 봄날처럼 부드럽게 되었다. 『동방선생집(東方先生集)』이란 저서를 낸
문인이 바로 그였다.

그런데 그도 서왕모의 대노를 싸게 되어 도피행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서왕모의 명을 받은 마고(麻姑) 할머니는 동방삭을 잡으려고 찾아다녔으
나 워낙 변신술에 능한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마고 할머니는 숲에서 기다리는데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를 몰랐다. 숲속에 앉아 검은 숲을 바라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의 긴 손톱도 다 닳고 말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는 숲을 바라고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지
나가면서 보니 이상하였다.

“노파는 왜 숲을 그렇게 씻고 있소”하고 물으니 노파가 답하기를 “검
은 숲이 흰 숲이 되도록 물에 씻어 바래는 중이래오”라고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 말을 들은 길손은 “난 삼천갑자를 살아도

검은 숲을 희도록 바라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일세”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마고 할미는 “네 이놈 너를 잡으려고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네 명도 끝장이구나!” 하며 동방삭을 잡아 가버렸다. 이 숲못에서 한 마디의 실언으로 1만8천 년의 운명이 끝날 줄을 그는 미처 몰랐다.>

중국에 떠도는 전설이 어떻게 해 울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 숲못의 면적은 6,000㎡로 2008년 3월 중구청에서 주위의 부지를 확장하여 3만여㎡의 면적으로 <성안동 숲못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함월루

중구 주산인 함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무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형의 형태와 고저차를 이용한 건물 배치를 띄고 있다.

함월루는 ‘달을 품은 집’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2층 구조로 연면적 200㎡ 규모로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주shipo 양식의 전통 건축양식이다. 누각에 오르면 안개가 끼지 않은 날에는 울산대교가 한눈에 들어와 울산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이다.

함월루 현판 한 개는 송천 정하건 선생의 글이며, 기문은 참얼

조동래 선생이 썼다.

대들보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1호 단청장 양용호 선생이 그린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조화도가 있고 넓은 마루는 누구든 앉아서 경치를 바라보기에 편하다.

함월루 옆에는 주민 쉼터를 겸한 관리동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다. 함월루 건립공사는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2015년 1월 20일 자로 조성이 되었다.

※참고문헌

『전통사찰총서 18-부산·울산·경남의 전통사찰총서』

(2003)사찰문화연구원

『울산지명사』(1986) 이유수, 울산문화원·울산시

『울산의 문화재』(201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산이 보인다』(2000) 장성운, 대성문화



8월 기행

신불산



간월사지 - 작괘천 -
선무원종공신석각 - 작천정



신불산

(神佛山)

신불산은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와 이천리, 삼남면 가천리 그리고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걸쳐 있다. 신불산은 소위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고산지 가운데 주봉으로 높이가 해발 1,209m이다. 주봉에서 보면 동북으로는 간월산이 손에 잡힐 듯 있고 남쪽에는 초원으로 이어진 능선 너머로 영축산이 있다.

옛 지도에는 가지산과 영축산 사이에 있는 신불산이 간월산과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울산울주지』에는 ‘在肝月山 丹鳥城下 勻掛川 上流하니 景概絶勝 하다’고 되어 있어 신불산, 간월산, 영축산을 한데 묶어 놓았다.

신불산은 이름이 말해 주듯 불교 냄새를 풍기지만 이름을 풀

이하면 ‘산신령이 도를 닦는다’는 뜻으로 인간이 어려울 때 도와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옛 문헌에는 신불산이라는 이름은 찾기 힘들고 ‘간월산 단조봉’이라는 지명이 간혹 보인다.

흔히들 간월산 정상을 단조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조봉은 간월산이 아닌 신불산에 있다. 그것은 홍류폭포를 보면 자명해진다. 간월산 산장에서 간월골로 오르다 보면 홍류폭포는 왼편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울산지명 유래’는 ‘홍류폭포의 유원이 단조성 안의 정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적어놓고 있다. 또 ‘구름에 덮인 단조봉에서 한 폭의 청수가 흘러 폭포를 이루고 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보면 단조봉이 간월산에 있지 않고 신불산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

신불산의 ‘신(神)’은 신성지라는 뜻이 담긴 성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성한 땅 신성한 산을 말한다. 또 신불산을 ‘왕뱅, 왕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모두 왕봉(王峰)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이 신선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최근 들어 언양에 울산 KTX 역사가 생겨나면서 울산의 등산객들은 물론이고 전국 등산객들이 몰려와 이 산을 오른다. 등산객들은 특히 겨울에 이 산을 오를 때 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겨울 동안 산 전체에 덮인 백설을 밟고 정상에 오를 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쾌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이 높다 보니 정상에는 나무가 많지 않다. 대신 신불산 역세는 명성이 높아 울산 12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역세가 장관을 이

루는 가을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든다. 신불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억새밭이 있어 전국 100대 명산으로 손꼽힌다. 늦은 가을 숨털처럼 휘날리는 장엄한 억새밭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감동이다. 이 풍경은 다른 산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이다.

이 산은 또 언양과 삼남면 사람들과는 떼어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당시만 해도 봄이 되면 인근 아낙네들이 이 산에서 자라고 있는 반달비·곤달비·미역취 등 산나물을 뜯어 가족들의 주린 창자를 채워야 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남정네들이 식량 증산의 밑거름이 되는 퇴비를 만들 풀을 뜯기 위해 무거운 등짐을 지고



● 신불산

이 산을 오르내려야 했다.

또 가을이면 겨울철 땀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아침 일찍 새벽밥을 먹고 초배기에 보리밥을 가득 담아 하루 종일 산을 헤맨 뒤 해가 질 때면 무거운 등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지금은 배 과수원과 목장으로 변했지만 산 중에는 당시 이처럼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렸던 사람들이 쉬었던 휴식처가 많았다.

신불산은 임진왜란 때는 왜병의 복상을 막는 단조성이 있었고 해방을 전후해서는 좌우익이 피아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비극의 현장이기도 했다.

단조성은 신불산 정상에 있다. 이 성은 울산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처럼 높은 곳에 성이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울산에서 단조성으로 오르는 길은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삼남면 가천리에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양에서 상북을 지나 배내로 들어가 신불산 뒤로 오르는 것이다.

가천에서 단조성으로 오르려면 산세가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등산 도구를 챙겨야 한다. 가천에서 단조성으로 오르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가 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이 방향에서 단조성을 여러 번 침공했지만 험악한 산세 때문에 실패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왜병은 결국 가천에서 공략하는 것을 포기하

고 양산으로 내려가 원동을 통해 배내길로 들어가 신불산 뒤로 공격해 이 성을 함락시켰다.

배내에서 신불산으로 오르다 보면 산 중간에서 태봉정(胎封亭)을 만나게 된다. 이 정자가 있는 곳이 바로 682고지다. 이 고지는 6·25 무렵 영남지역에서는 빨치산이 가장 준동을 많이 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아군과 빨치산들 사이에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기도 하다. 정자에서 보면 이 지역이 국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군이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는 곳은 산 아래 물금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옛날 울산상공회의소 연수원이 있었던 곳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길만 차단하면 국군이 들어올 수 없어 공비들에게는 안전한 지역이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인지 한국전쟁 때는 빨치산들이 이곳에 인민군 학교를 세웠다. 서부 경남 일대에서 패망한 공비들과 지리산에서 이곳으로 도피했던 공비들은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6·25 당시 농소역이 파괴되고 삼남면 사무소가 소실된 것 역시 이곳에 있었던 빨치산들의 소행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들은 울산지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양민들을 괴롭혔다.

당시 국군은 전방의 적 못잖게 후방의 공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동부 경남에서 공비 토벌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 신불산이었다. 특히 1951년 국군이 벌인 신불산 작전은 유명한 전투로 손꼽히고 있다.

이전에 지리산 토벌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도사단의 2개 중대가 신불산 공비 토벌에 나섰다. 국군은 지리산 토벌의 성공만을 믿고 이곳에 뛰어들었지만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다. 패인은 공비들이 이 지역 지리에 밝았던데 반해 토벌대의 경우 지리에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국군은 1951년 12월에도 증원해 이 지역을 토벌했다. 이때는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공중폭격까지 했는데도 토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빨치산은 남도부부대였다.

피아간 엄청난 사상자를 내었던 이 전투는 국군이 끝내지 못하고 결국은 전투 경찰이 공비를 몰아내었다. 이후에도 밀양·양산·울산의 경찰 병력 30명이 8개월간 이 고지에 머물면서 공비의 거점을 분쇄한 결과 이곳이 평화의 지역이 될 수 있었다.

임진왜란은 한국전쟁보다 훨씬 앞서 일어났다. 이들 싸움의 특징은 한국전쟁이 동족 간 싸움인데 반해 임진왜란은 우리 조상들과 왜병 간 싸움이었던데 있다.

파래소 밑에 있는 백련 마을은 두 번의 전쟁을 모두 겪었다. 임진왜란 때 왜병들은 단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천 쪽에서 여러 번 침공했지만 그때마다 지형이 험해 실패했다. 이 때문에 왜병들은 전략을 바꾸어 가천 방향에서 신불산을 오르지 않고 멀리 양산으로 빠져 원동으로 들어와 배내를 거쳐 후방에서 침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 왜병들이 단조성에 오르기 위해 지났

던 마을이 백련 마을이었다.

신불산은 최근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시끄럽다. 울산시는 신불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들이 산 정상까지 편히 오를 수 있도록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신불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저지하고 있어 논쟁이 뜨겁다.

신불산 인근에는 단조성과 파래소폭포, 홍류폭포, 간월사, 작괘천 등 유명 관광지가 많은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단조성

임진왜란 때 부산에 상륙한 왜병들은 부산에서 양산을 거쳐 언양을 지나 한양으로 들어갔다. 단조성은 양산을 거쳐 북상하는 왜병들을 막기 위해 조성되었다. 성의 동편 아래 평원을 거쳐 북상하는 왜병들을 후방에서 게릴라전으로 무찌르기에는 이곳보다 좋은 장소가 없다.

신불산에서 영취산으로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긴 돌무더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돌무더기가 단조성이다. 단조성은 돌이 쌓여 있는 형태가 아니고 흩어져 있다. 따라서 언뜻 보면 성의 모습이 아니고 산마다 있는 돌무더기 형태다.

옛 문헌들은 단조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신동국여지승

람』은 단조성을 ‘취서산 공성’이라 하였고 『증보문헌보고』는 ‘언양의 남쪽 13리에 있는 취서산에 이 성이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전략적으로 단조성이 얼마나 요새였나 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왔던 명나라의 한 장수가 “조선에는 성이 많지만 단조성을 빼앗겨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단조성이 흡사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 옛날 사람들은 이 성을 ‘단지성’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항아리 모양의 입구만 방



● 단조성

어하면 적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막기에는 최적의 성이었다.

영축산 정상은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는 긴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런 지형을 이용해 성을 쌓았다. 마치 단지처럼 생긴 이 성은 성 자체가 하나의 천연요새였다. 실제로 이 성의 동편은 낭떠러지로 험해 자연 방비선이 되어 따로 성벽을 쌓지 않아도 되었다.

단조성에서 보면 양산과 언양 사이의 평원이 잘 보이지만 산이 험하다 보니 왜병들이 단조성에 주둔하고 있는 의병들을 보아도 감히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지형 때문인지 왜병들은 가천리 마을에서 여러 번 이 성을 공략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 정규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데 비해 의병들은 지리에 밝아 왜병들을 대적하면서 이 땅을 지켜내었다. 이렇게 보면 임진왜란 때 단조성에 모였던 장병들도 대부분 의병이었을 것이다.

왜병의 단조성 함락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온다.

신불산 지형을 본 왜병들은 정공법으로는 단조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성의 정찰에 나섰다. 이때 왜병들은 영축산 아래 바위굴에서 베를 짜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하고 이 성의 지형을 물었는데 이 할머니가 바로 ‘여천각시’였다고 한다. 왜병들은 아군으로 위장하고 길을 물었기 때문에 여천각시는 서

슴없이 “영축산을 돌아 서편에 있는 백발등으로 쳐들어가면 쉽게 입성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왜병들이 그날 밤 백발등으로 올라가 의병들을 쳐부수니 이 성을 지키면서 용감하게 싸웠던 의병들이 한꺼번에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의병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던지 피가 못을 이루었고 나중에 이 못 중심으로 진풀이 자랐다고 하는데 요즘도 단조성 인근에는 색이 불그스레한 진풀이 많다. 사람들은 진풀의 색이 붉은 것이 당시 의병들이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후 신불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원수로다, 원수로다. 백발등이 원수로다’ 하는 원망스러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단조성에서 싸웠던 의병들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지 신광윤(辛光胤) 부자의 활약상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어 당시 의병들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썼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신광윤 장군은 임진왜란 때 종 6품의 무관인 부장으로 아들 신전(辛堉)을 데리고 의병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의병의 숫자가 부족하자 왜병을 속이기 위해 부하장병들로 하여금 성 인근에 많은 돌무더기를 만들도록 하고 그 돌무더기에 허수아비를 세워 아군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즘 단조성 인근에 돌무더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홍류폭포

상북면 등억리에 있다. 신불산과 간월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편으로 흐르다 이곳에서 폭포를 만든다. 폭포 높이는 33m 정도 이고 이곳에 떨어진 물은 작괘천과 구수리 마을을 지나 태화강으로 흘러든다. 간월산장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이 폭포 왼편으로 올라가면 공룡능선을 만나게 된다.

이 폭포가 홍류폭포로 불리는 것은 폭포에서 자주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이다. 폭포가 떨어지는 수심이 깊지 않고 소(沼) 역시 넓지 않지만 소 주위에 자연석이 많아 이 돌 위에 앉아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겨울에는 고드름이 절벽에 매달리는데 이 경치 또한 좋다. 현재 폭포 조금 아래에는 정자가 있어 이곳에서 쉬면서 폭포를 보는 것도 좋다.

파래소 폭포

상북면 배내골에 있다. 신불산과 간월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편으로 흐르면 홍류폭포로 가고 서편 배내골로 내려오면 파래소 폭포를 이룬다.

물이 차갑고 수심이 깊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

다. 물이 맑아 푸르고 물고기도 서식한다. 수중에 바위층이 있어 동굴이 있다고 전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이 떨어지는 높이는 15m 정도이고 소의 둘레는 100m 정도가 된다.

옛날에는 이 폭포를 ‘바래소’라고 불렀다. 이것은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이곳에서 지내면 비가 내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때문에 요즘도 울산과 부산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비가 오고 나면 수량이 많아 폭포 주위에는 안개처럼 물보라가 생기고 때로는 무지개가 일어나 장관을 이룬다.

특히 폭포 중심은 수심이 깊어 옛날에는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끝이 닿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요즘도 폭포가 떨어지는 곳은 물이 감돌면서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을 보인다.

이곳에서 연동마을로 흘러내린 물은 배내천에서 합수해 낙동강으로 들어가는데 배내천에는 물고기가 많아 옛날에는 울산과 양산 사람들이 몰려와 천렵을 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고 폭포 아래 산림문화휴양관이 생겨 여름철이면 울산과 양산, 부산에서 피서와 삼림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



● 작매천

작괘천

삼남면 교동리에 자리 잡고 있다. 맑은 물과 수많은 암반, 노송 그리고 정자가 있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옛날에는 부산과 경주, 밀양, 양산 등 울산 인근 도시에서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찾아와 자연풍광을 즐겼다.

이들이 새긴 글과 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작괘천의 아름다움은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이 물들이 세차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넓직한 바위에 있다. 작괘천의 발상지인 신불산과 간월산 그리고 봉화산과 백택안산 역시 작괘천과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작괘천 물은 신불산과 간월산에서 생겨나고 이 물들이 봉화산과 백택안산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데 그 풍광이 다른 계곡에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청량하다. 작괘천을 흐르는 물소리는 암벽이 많아 크다. 한여름 이곳의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 수천 마리의 매미가 우는 것처럼 느껴 저 귀가 멍해진다. 또 겨울 얼음 속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여름에 비해 소리는 작지만 물의 떨어지는 소리가 맑고 청명하다.

봄과 가을에도 이 계곡 물은 흰 눈이 날리듯 포말을 일으키면서 흐르는데 포말 옆에는 항상 몸통만 한 암석과 집채만 한 바위들이 있어 자연의미를 돋우어 준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작괘천

바위를 보면 각종 시조와 옛글들이 새겨져 있어 선인들의 풍류가 지금까지 들려오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작천정 역시 작괘천의 명물이다. 작천정은 작괘천에 있는 정자로 고종 32년(1895) 언양 현감으로 부임한 정공조가 언양의 선비를 초대해 시회를 열면서 건립이 시작되었다. 시회가 끝난 후 정 현감은 그날 모인 선비들과 함께 시사(詩社)를 결성하고 성금을 모아 정자를 건립하자고 제의하니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했다.

이후 1898년 최시명 군수가 부임해 정 현감이 이루지 못하고 간 작천정 건립을 시도해 1902년 완공을 보게 되었다.

자수정 역시 자랑거리다. 자수정은 한국을 대표하는 광물인데 작괘천 인근에 자수정 광산이 있다. 언양 자수정 광산은 상북면 등억리와 삼남면 가천리 일대에 있다. 해방을 전 후해 이 광산에서 질 좋은 자수정이 많이 생산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팔렸다.

최근에는 자수정 광산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자수정을 채굴한 후 생긴 굴을 중심으로 '자수정 동굴나라'를 만들어 관광시설 허가를 획득했다. 사업면적 총 16만 평으로 1998년 1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굴 길이만도 2.5km가 된다. 1층과 2층을 합해 5천여 평에 이르는 이 동굴은 연 평균 온도가 14~16도를 유지해 여름에도 시원하다. 현재 이곳에는 각종 전시관이 있고 이벤트 행사도 수시로 열린다.

선무원종공신마애석각도 작괘천의 명소다. 이 바위에는 임진

왜란 때 언양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한 의병장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모두 10인의 공신 이름과 본관 및 관직이 새겨진 이 바위는 1936년 10월 18일 건립되었다.

이 바위를 건립하기 위해 공신들의 후손이 원모계를 시작한 것이 1926년이였다. 첫해에는 20원의 기금이 마련되었고 10년 뒤인 1936년까지 36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이 해 다시 20원을 각 출해 이 석각을 세웠다.

이후 1986년 공신 후손들이 공신비 옆에 선무원종공신추모비를 다시 세웠는데 당초 석각에는 김정서 등 10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추모비를 세울 때는 이섬과 신광윤, 신전 부자를 추가했다.

간월사

신불산 동편 등억에 있다. 이 사찰은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때 자장 율사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조선조까지 법당이 꺼지지 않고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다시 개축한 것으로 추측된다.

절의 특징은 기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절을 언급하고 있는 역사서로는 『관월사기』와 『언양읍지』가 있을 뿐이다.

『언양읍지』는 간월사 창건과 관련 ‘선덕여왕 5년(636)에 자장

율사가 중국 종남산 운제사로부터 돌아와 간월산에 머물면서 통도사보다 먼저 이 사찰을 건립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자장 율사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당나라에서 돌아와 이 사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울산 태화사와 양산 통도사를 건립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문헌의 기록은 설득력이 있다.

이 절터에는 오랜 세월 깨어지고 무너지고 마멸되었지만 창건



● 간월사지

당시 절의 규모와 크기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남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기의 석탑은 경주가 아닌 외지에서는 흔치 않지만 이 탑이 언제 건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고증이 없다.

대웅전으로 추정되는 절터의 방향 역시 특이하다. 옛 절터의 경우 대웅전은 대부분 남향인데 반해 이 절터는 정동향이고 대웅전의 규모 역시 절터에 비해 작다.

이 절은 창간 당시 12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신불산 전체에 오백 나한을 곳곳에 세울 정도로 컸다고 한다. 실제로 요즘도 신불산 곳곳에는 당시 암자였던 자리와 오백 나한을 앉혔던 자리가 발견되고 있다.

이 사찰이 자랑하는 유물로는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1960년 보물 제370호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은 울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다. 높이는 1.35m인 돌부처의 특징은 안정감이다.

둥근 머리에는 육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신 나발을 촘촘히 새겼다. 얼굴은 몸에 비해 크지 않고 둥글고 눈은 으스스하게 감은 듯 보여 명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 중앙에는 백호가 있었던 흔적이 있고 코와 입술은 두텁게 조각했다. 어깨는 좁고 빈약하게 보이지만 대신 삼도가 큼직하고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석탑의 조각도 다른 사찰에 비해 특이하다. 간월사 탑은 남북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문비만 해도 북탑

에는 자물쇠가 없는 데 반해 남탐에는 자물쇠의 모습이 들어 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두 탐이 서로 다른 시대에 조각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9월 기행

삼태봉



대안동 쇠부리터 -
관문성 - 기령고개



삼태봉

(三台峰)

함월산에는 기백령 혹은 기백이제라 부르는 511.5m 높이의 고개가 있다. 이 고개 인근에는 기박산성이 있는데 기박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일대를 ‘함월산 삼태봉’ 혹은 이를 줄여 ‘삼태봉’ 이라고 부른다.

1749년에 완성된 사찬 『울산읍지』에는 북구 일원의 산으로 무룡산과 동대산만 보인다. 그나마 동대산은 이들 산의 통칭이다. 옛 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제월당 이경연(霽月堂 李景淵) 선생의 문집에는 기박산성을 함월산성(含月山城)이라고 지칭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곳이 함월산(含月山)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1년에 발행된 『조선지지자료』

에는 약수동의 기백령(旗百嶺)과 마동에 속한 함월산과 군산(君山)이 보인다. 그러나 이 함월산(526m)은 신흥사 뒷산이고, 군산은 파군산(532m)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749년에서 1911년 사이에 함월산이 기박산성 쪽에서 신흥사 쪽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기박산성에 있는 삼태봉을 ‘함월산 삼태봉’으로 부르는 것은 아마도 원원사 뒤에 있는 삼태봉(629.1m)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곳이 경주 양남면 신대리에 속하기 때문에 울산 지역의 지지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함월산이나 삼태봉이라는 이름은 지도나 행정상으로 쓰는 정식 이름이 아니다. 그저 일반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이다. 오히려 기박산성이 통칭으로 사용되는 모양새다. 또 함월산은 『조선지지자료』 이후로 신흥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요는 기박산성이 있는 이 산의 이름이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삼태봉 인근에는 기박산성, 관문성, 파군성, 대안동 쇠부리터, 중산동 성지와 고분군 등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박산성(旗朴山城)

기박산성은 현재 복구에 남아 있는 성 중에서 어느 정도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성벽이 남아 있는 산성이다. 울산 매곡에서

신대리로 올라가는 포장도로를 따라 계속 오르다 보면, 신흥사와 마우나오션 리조트로 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왼쪽 길 마우나오션 리조트 못 미친 주차장에서 산길로 접어들면 이내 무너진 성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관문성이 이 산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는 관문성에 포함되었다고 보았으나, 점차 별도로 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 성이 관문성과 같은 시기에 축성되었는지, 다른 시기에 쌓았는지도 확실치 않다. 같은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 관문성이 더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학계에서는 조선시대 읍지나 고지도에 보이는 명칭을 따라 대점성(大岾城)이라 부르거나, 오늘날 지명대로 신대리성이라 부르



● 기박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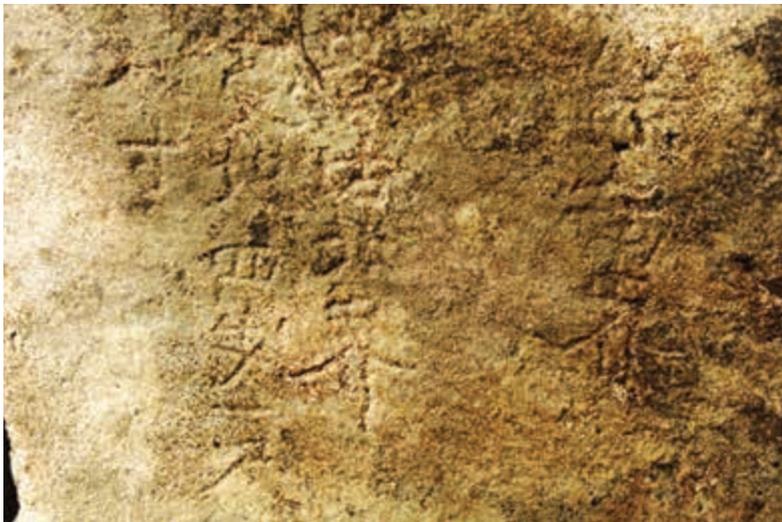
기도 한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기박산성(旗朴山城)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장들의 기록에는 함월산성(含月山城)이라고 했다. 사찬이기는 하지만, 울산 최초의 읍지인 『학성지(鶴城誌)』(1749)에는 기박산성이라고 했다. 또 고종 9년(1872)에 그린 신흥산성도(新興山城圖)를 보면 당시에는 신흥산성이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대점성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대점성이 가장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월산성이 가장 오래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했고 『학성지』는 1749년에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성을 중요하게 여겨 원래 대로 함월산성으로 부르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함월산 삼태봉 해발 590m 정상에 있는 둘레 약 1.8km의 기박산성은 문헌에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축성연대를 알 수 없다. 테포식으로 축조했는데 급경사 지역에는 험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성을 쌓지 않았다. 관문성과 달리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조선 시대까지 계속해 사용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의병과 승병들이 이곳에서 항전했다. 곳곳에 당시의 보수 흔적이 보이지만 거의 본래의 윤곽을 유지하고 있다. 성의 북벽과 마주 보는 산에는 대점봉수(大岾烽遂)가 있었다. 이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대점성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내에는 문터 5개소와 수구 3개소, 건물터 5개소 및 우물과

연못이 각각 1개씩 남아 있다. 관문성에는 축성과 관련한 비석이나 명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기박산성에서는 1980년에 10개의 명문 각석(刻石)을 발견해 경주 남산산성과 같이 동원된 인력이 일정한 구간을 분담해 축성했음을 알게 되었다.

성의 축조에 지방민을 동원하고 일정한 구간을 할당해 부역시키는 모습은 이미 경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와 무술오작비(戊戌塢作碑)에 의해 알려졌다. 이 명문은 당시 동원된 지역이 이곳과 가까운 통일신라시대 양주(良州) 소속의 군현들이어서 당시의 부역 동원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명문에 보이는 지명으로는 ‘거칠산(居七山)’, ‘압달(押喙)’, ‘금경(金京)’, ‘절화군(切火郡)’, ‘퇴화(退火)’, ‘서량군(西良郡)’이 있



● 기박산성 명문

다. 따라서 대점성 축성을 위해 부산, 경산, 경주, 영천, 흥해 등지에서 인부를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서량군은 생서량군으로 추정되며, 오늘날 울주군 서생면 일원이었다.

명문은 바로 성벽 바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남문지(南門址, 원래의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120m 지점)와 그곳에서 동북쪽으로 35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수구(水口) 사이에서 10개가 발견되었으며, 처음 축조했을 때의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은 성벽의 표면을 다듬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표면에 새겼으며, 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내용을 두 개의 인접한 돌에 새기기도 하였다.

각석에는 각 군현이 담당한 축조 구역의 북쪽 경계인 북계와 남쪽 경계인 남계, 그리고 담당 구역의 길이를 표시했다. 그래서 각 군현이 맡은 축조 구역의 평균 길이가 약 6보 3척(당척 29.4cm 기준, 약 18.5m)이었음을 알 수 있고, 성의 둘레가 약 1.8km이므로 원래는 약 100개 내외로 구역이 나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석도 그만큼 있었을 것이지만, 후대의 보수 혹은 자연적인 마멸 등으로 더는 보이지 않는다. 또 현재 발견된 각석도 2개를 제외하고는 연속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었을 각석들은 훼손되었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문성

관문성은 국가사적 제48호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울산시 북구 중산동과 천곡동·달천동을 거쳐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까지 연결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축 산성으로 총 길이가 12km에 달한다. 이 때문에 ‘만리성’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는 ‘성덕왕 21년(722) 10월에 모화군에 성을 축조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성의 명칭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 21년 조’와 『지리지』, 『임관군조』, 『삼국유사』, 『기



● 관문성

이』 ‘효성왕조(737~742)’ 등의 기록을 참고할 때 ‘모벌군성(毛伐郡城), 문화관문(蚊火關門), 모화관문(毛火關門), 모벌관문(毛伐關門)’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벌군의 ‘벌’ 자는 음차(音借)한 ‘화(火)’ 자로도 표기했다. 모벌군은 경덕왕(景德王, 742~765) 대에 임관군(臨關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 부르는 ‘관문성’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에 사용한 명칭이다. 옛 기록을 참조해 이 성이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위 ‘효성왕조’에 각간(角干) 원진(元眞)이 39,262명을 동원해 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곽 대부분은 무너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두산저수지 인근에서 시작해 천마산과 천곡동 일대 산 8부 능선을 따라 군데군데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성을 쌓기 전에 판축(흙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석성을 쌓았기에 성은 무너졌어도 성을 따라 판축한 곳은 지금도 등산로로 쓰이고 있다. 순금산과 속심이를 지난 성은 경주로 연결되는 천곡동과 중산동 사이 구조대(構造帶) 가운데를 흐르는 동천을 건너 동대산 자락으로 이어진다.

성벽은 가로 40~50cm, 세로 20~50cm 정도의 자연석과 가공된 돌을 이용해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물림 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또 산지에서는 내탁법(內托法, 성벽의 바깥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이나 잡석을 채우는 방식)을, 평지나 골짜기에는 협축법(夾築法, 성벽 안팎을 수직에 가깝게 쌓는 방식)으로 쌓았다.

관문성은 우리나라 산성의 일반적인 특징인 테뫼식 산성(산 8부 능선 부근을 머리띠 두르듯 쌓은 산성)이나 포곡식 산성(산의 밑 부분을 둘러 계곡 등을 포함해 쌓은 산성)이 아닌 산과 산을 연결해 길게 늘어진 산성이다. 현재 고려 시대 때 쌓은 천리장성을 제외하고는 남한에서 가장 긴 성으로 알려졌다. 문지(門地)는 지형이나 기와가 출토되는 양상으로 볼 때 평지에 해당하는 범서읍 두산리 관문마을과 중산동의 이화마을이 유력하다. 또 중산동에 복원한 관문성에는 체성의 상부시설로 여장(女牆)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 또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통일신라시대에 관문성을 쌓은 것은 왜적의 침입 루트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이전엔 대종천(동해천) 부근, 지금의 문무왕 수중



● 관문성 성터

릉 부근에 있는 동해구에 상륙해 동대산과 토함산 옆 만호봉 사이 계곡을 통해 보문을 거쳐 침입했다. 또 포항(도기야, 현재의 도구 해안)으로 상륙하거나 배를 타고 형산강을 따라 올라왔다. 동해구로 들어오는 적을 막는 역할은 명활산성이 맡았고, 포항 방향으로 들어오는 왜는 북형산성이 막았다. 통일 이후 서라벌의 규모가 확장되고 울산이 신라의 무역항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왜의 침입 루트도 울산, 즉 염포나 태화강 쪽으로 바뀐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673년 9월에 축조한 북형산성과 함께 경주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영일만과 울산만에 상륙하는 왜적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반월성의 주위가 1,023보인데 반하여 관문성 규모는 6,792보 5척이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지고 성문지로 추정되는 석축이나 창고지·병사지(兵舍址) 등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현존하는 남산성과 관문성의 석축성벽을 비교해 볼 때 관문성을 축조한 축성술이 훨씬 발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주 주변 성곽과 달리 산과 산을 연결해 길게 축조한 특수한 형식의 산성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관방시설 유적 중 가장 많은 것이 성(곽) 또는 성터이다. 그중에서도 산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에도 30여 개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먼저 읍성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반구동 토성이 있고, 조선시대 석축으로 쌓은 울산 읍성과 언양읍성이 있다. 병영성, 개운포성, 서생포진성은 조선시대 쌓은 영성이다. 울산 역시 산성이 가장 많은데, 문수산성·

은월산성·비옥산성·운화리성·강양리성·화신리성 등은 삼국시대 축성했다. 기박산성과 관문성은 통일신라 때 성이며, 기박산성·단조성·과부산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사용한 성이다.

그밖에 성보다 규모가 작은 유포석보와 특수 용도로 쌓은 마성과 숙마성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울산왜성과 서생포왜성도 있다. 울산에는 이렇듯 다양한 성들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기를 달리해 분포하고 있다. 봉수대 유적과 더불어 왕조마다 울산을 전략요충지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파군성

파군성은 파군만디라고도 한다. 기박산성에서 남쪽으로 이어



● 파군성

진 산줄기 정상에 있지만, 지금은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직경 50m 정도의 평지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한 옛 기록이 전한다. 두 기록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의 창원지역에 있던 골포국에서 외적이 쳐들어오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머무르며 적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곳을 파군성(破軍城), 즉 적을 격파한 성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 골짜기를 적을 물리쳐서 크게 평안해졌다는 뜻으로 대안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먼저 16~17세기에 편찬한 『조선시대 사찬읍지17. 경상도(2)』, 「울산읍지」의 ‘고적조’에 나오는 기록이다.

“破軍城 在東大山南 新羅奈解王 乙未 骨浦昌原國人來侵屈火 王親率兵禦之 來屯此山 破賊回軍因名之 又名其洞曰大安”

파군성은 동대산 남쪽에 있다. 신라 내해왕 을미년에 골포·창원 나라 사람이 굴화를 침략해 왔다. 왕이 손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산에 주둔해 적을 물리치고 돌아갔기에 이렇게 불렀다. 또 그 골짜기를 대안(동)이라 부른다.

다음으로는 『학성지』의 영조 25년(1749), ‘관방조’ (성범중, 『국역학성지』, 2010, 42쪽)의 기록이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본문에 “내해이사금 이십년을미 동한헌제이십년”이 병기되어 있으나, “내해이사금 십칠 년”(212)이 맞다.

“罷軍山 在旗山城南 新羅第十王奈解尼師今十六年壬辰(東漢獻帝十七年) 骨浦(柒浦古號)國人(骨浦 今昌原 柒浦 今柒原) 來攻屈佛(今蔚山屈火) 奈解親率師禦之 來屯山城 破賊回軍因名其山 曰破軍山 名其洞曰大安洞(出僧端肅志)”

파군산(罷軍山)은 기산성 남쪽에 있다. 신라 제10대 왕이었던 내해 이사금 17년(212, 동한 헌제 17년)에 골포(칠포의 옛 이름) 나라 사람(골포는 지금의 창원이고, 칠포는 지금의 칠원)이 와서 굴불(지금의 울산 굴화)을 공격하므로 내해가 친히 군사를 이끌어 그들을 막고 이 성에 와서 주둔하다가 도적을 격파하고 회군하였으므로 그 산의 이름을 파군산(破軍山)이라 부르고 그 골짜기를 대안동이라고 부른다. (출처:승려 단숙지)

대안동 쇠부리터

삼한시대 이래 영남지역 최대 철(광석)생산지였던 달천철장의 토철을 이용해 쇠를 생산하던 쇠부리터는 울산 인근에 지금도 약 120여 기 이상 전한다.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4호인 대안동 쇠부리터도 그 가운데 1기였다. 쇠부리터는 동해를 향한 동대산 줄기 ‘깊은 골’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작은 냇가 옆에 있어 작업에 꼭 필요한 연료(숯)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토둑과 노(爐, 높이 1m, 지름 2m) 일부와 함께 양쪽으로

약 3m 길이의 축대가 남아 있는 등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주변에는 솥을 구웠던 흔적과 쇠똥(슬래그)이 산재하고 있다. 특히 철 생산의 중심시설인 노의 일부가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2004년에 발견한 후 2006년 1월에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쇠부리에는 ‘생쇠부리’와 ‘익쇠부리’ 두 가지가 있다. 생쇠부리는 달천에서 운반해 온 토철을 녹여 판장쇠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쇠를 다시 녹여 솥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익쇠부리라 한다. 다시 말해 생쇠부리는 용광 작업이고, 익쇠부리는 용선 작업이다. 쇠부리터는 ‘쇠똥부리터’, 혹은 ‘점터’라고도 했다. 토철을 녹여 쇠를 뽑아냈던 생쇠부리 작업을 했던 곳이다. 국내에서 쇠부리터는 130여 곳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120여 기가 울산



● 쇠부리터

인근에 산재해 있다. 청도 운문산 일대에 12곳, 밀양 산내 1곳, 경주 내남 6곳·산내 1곳·외동 27곳·양남 5곳 등 경주지역에 43곳이고, 울산에서도 40여 곳의 쇠부리터를 찾아냈다. 또 북구 당사동 당사마을 뒷산에서도 개울 인근에 산재한 돌을 쌓아 만든 쇠부리터를 발견했다.

쇠를 녹이기 위한 연료는 토철보다 25~30배 나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료가 풍부한 곳에 점터(쇠부리터)를 만들어 일꾼들이 상주하면서 쇠를 만들었다. 이 점터를 일구는 경영주를 전주라고 한다. 전주는 연료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지내기가 괜찮은 곳을 찾아 손 없는 날을 택해 평지작업을 한 후 점터를 일꾼다. 참숯을 쌓아 돌 목탄 저장소, 숯을 가마에 넣을 숯장이와 토철을 가마에 넣을 쇠장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소를 따로 만들고, 풀무를 밟을 불매꾼 대기소와 취사장도 만든다. 한 쪽에는 쇠를 뽑아낼 가마를 쌓고, 다른 한쪽에는 가마에 바람을 불어넣을 대형 풀무를 만든다.

가마는 먼저 돌과 찰흙으로 길이 20m, 폭 2m 정도의 기초를 만든 다음 가운데를 높이면서 경사지게 토둑을 만들고, 그 중심부에 불에 잘 견디는 점토로 타원 추형의 가마를 만든다. 가마는 윗부분을 가로 1.3m, 세로 2.3m 정도 크기로 만들고, 아래는 깔때기처럼 모양을 다듬는다. 가마 뒤편에는 풀무에서 일으킨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구멍을 여러 개 뚫고, 앞쪽으로 다 녹은 쇠물을 받을 초롱 구멍을 만든 후 바닥은 면이 고른 불목돌로 막아둔다.

풀무는 두꺼운 송판을 스물넉 자 길이로 이어서 만든다. 두꺼운 형짚을 아교풀로 여러 겹 붙여 주름관(자바라) 모양으로 접어서 양쪽에 설치하고, 풀무에서 가마까지도 형짚으로 만든 굵은 송풍관을 연결한다. 이때 쇳물을 받아 네모 반듯한 덩이쇠를 만들 바탕도 만들어 둔다. 내화성이 뛰어난 점토로 만드는데, 쇳물을 받을 때 금방 식지 않도록 불에 달구기 위해 이동식으로 만든다.

일련의 이런 작업이 진행될 동안 모든 부정을 막기 위해 잡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 과정마다 쇳물이 잘 나오게 해 달라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했다. 기능인을 제외한 일꾼 대부분은 현장 인근에서 구했기에 이런 설비를 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작은 점터는 44명 정도, 큰 쇳부리터는 100명이 넘는 일꾼들로 구성된다. 쇳부리 전체를 지휘하는 도편수와 골편수, 불편수, 걸대장과 숯장이, 쇳대장과 쇳장이, 불매대장과 불매꾼이 있고, 식사를 담당



● 토독

하는 공양주와 전주가 있다. 점터에는 또 미리 확보한 토철과 오래전부터 나무를 베어내 구워둔 숯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조직과 준비가 완성되면, 골편수는 마지막으로 가마를 점검하고 불편수는 골 바닥에 갈비와 삭정이를 알맞게 쌓아 불소시계를 만든다. 이어서 걸대장과 숯장이는 토둑 가득히 숯을 채운다.

그리고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거창한 고사를 지내고 배불리 음복한 다음 첫 작업을 시작한다. 불매대장이 불매꾼을 불매판 위로 배치하면, 불편수가 미리 준비해둔 불씨로 불소시계에 불을 붙인다. 토둑 위로 연기가 날 때쯤이면 도편수의 “불매 올려라!” 하는 신호를 시작으로 여덟 명의 선거리 불매꾼이 불매를 밟는다. 불매대장의 신명 나는 불매소리에 맞춘 불매질로 일어난 바람을 받아 토둑 위로 이글거리는 숯불을 토해낼 즈음 불편수는 쇠대장에게 “쇠 넣어라”라고 지시한다. 쇠대장은 쇠장이들을 이끌고 소쿠리에 토철을 담아 토둑 안에 쏟아 붓고, 걸대장도 숯을 알맞게 공급한다. 이때 숯과 토철이 알맞게 들어가야 하고 불매꾼들까지 일심동체가 되어 적시에 적정한 세기의 바람을 공급해야 좋은 쇳물이 많이 나게 마련이다. 불편수는 숯불의 세기와 토철의 용해 과정을 지켜보며 불매를 밟는 발놀림을 “빨리하라.” 또는 “늦추어라”라고 신호를 하면, 불매대장은 불매소리의 빠르기로 발 굴림 속도를 조절하였다. 한참을 밟아 토둑 위로 불길이 거세어지면, 불매대장이 “불매교체”라고 외쳐 대기하고 있던 8명의 후거리 불매꾼으로 교대시킨다.

이렇게 6~7시간 정도 불매질을 한 뒤 골편수는 쇠망치로 가마를 에워싼 토독을 두드려 쇳물이 얼마나 찼는지를 가늠해 본 후 독수리에게 키보다 긴 쇠꼬챙이를 건네주어 초롱 구멍을 막고 있는 점토 마개를 뚫어 쇳물을 내려 판상쇠틀을 채워나간다. 이때 골편수와 불편수는 고무래로 쇳물 위에 뜬 불순물을 걷어내고 갱엿처럼 굳어지는 덩이쇠를 다독인다. 보통 한 부리에 70~80근 나가는 덩이쇠가 잘 되면 8장 정도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5장 정도에 그쳤다.

중산동 성지(中山洞城址)

중산리성지라고도 부르는 이 성은 기박산성의 남서쪽 1km 지점에 있는 해발 410m의 산정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관문성과 기



● 중산동 성지

박산성, 그리고 중산동고분군(中山洞古墳群)이 분포하고 있다. 길이는 300~400m 정도이며 석성으로 축조되었지만, 대부분 붕괴되어 유실되었고 서북쪽 일부에 흔적이 남아 있다.

중산동 고분군

중산동 고분군은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9호다. 삼한 후기~삼국 후기시대 옛사람들의 집단거주지였던 취락유적에 살았던 사람들이 축조한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산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죽은 이들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하였다. 또 그들이 사용한 생산도구 중 철기구는 당시의 대표적인 철생산지였던 동천강



● 중산동 고분군

건너에 있는 달천철장의 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울산방면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유적지는 이화마을을 중심으로 대략 20만 평에 달한다. 울산의 도시팽창으로 인해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삼국시대 매장유물이 노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삼한·삼국시대에 형성된 대규모 고분군으로 현재 세 군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991년과 1993년의 발굴조사 결과 널무덤, 돌덧널무덤, 덧널무덤, 돌무지덧널무덤, 앞트기식돌방무덤, 굴식돌방무덤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확인되었고, 여러 종류의 토기, 둥근머리큰칼 등의 무기와 철판 갑옷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장류가 다량 수습되었다.

1차 조사에서 덧널무덤 7기를 포함한 96기의 무덤이 확인되었고, 오리모양토기 2점 등 1,200여 점의 토기, 둥근머리큰칼 6점을 비롯한 200여 점의 철기, 금제 및 금동제 장식 3점이 수습되었다. 2차 발굴에서 다시 101기의 무덤과 청동기시대 움집터 1기가 조사되었고, 960점의 토기와 다량의 철기가 수습되었다. 당시 학계 관계자들은 확인된 고분 구조와 출토된 토기들을 놓고 신라 고분과 토기의 기원과 편년, 그리고 지역의 문화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중산동 고분군과 취락유적의 중요성은 자료상의 공백이 많았던 경주지역의 신라 고분문화와 취락사를 시기별로 연구하는 데 있어,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데 있다.



● 발굴 당시 중산동 고분군

고분군 유적은 갯안마을과 이화마을에 걸쳐 넓게 형성돼 있는 중산동 취락유적지 인근에 있다. 이 고분군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그동안 이화마을 일대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여러 마을로 나누어졌지만 옛날에는 모두 한 주거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호구장적에 의하면, 예종 1년(1469)에는 산방리(山坊里)라 불렸으며, 영조 5년(1729)에 이원방(二院坊)과 약수방(藥水坊)·산방리로 나뉘었다. 순조 4년(1804)에는 이원리·약수리·산방리로 나뉘었다가, 고종 4년(1867) 산방리는 없어지고 이원리와 약수리만 남았다. 고종 31년(1894) 이원동·약수동·점리동(店里洞)·화정동(化亭洞)으로 되었으며, 1911년에 인원동(仁院洞)과 약수동·화정동으로 줄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에 따라 인원동과 화정동에 약수동 일부를 통합하여 중산리가 되었다가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농소2동이다.

※ 참고문헌

- 『국역 화성지』, 성범중(역주), 울산남구문화원, 2010
- 『땅이름 울산사랑』, 강길부, 정도, 2002
- 『북구의 문화재』, 박중훈, 울산북구문화원, 2011
- 『북구지명사』, 울산북구문화원, 2011
- 『울산광역시사』,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15
- 『울산지명사』, 이유수, 울산문화원, 1986
- 『울산향토사 산고』, 박중훈, 디자인 오름, 2013
- 『한국의 성곽』, 손영식, 주류성, 2009
- 『향토와 지명』, 강길부, 정음사, 1985



10월 기행

봉대산



남목3동사 - 마성 -
동대산 봉수대 - 주전 붓도랑 -
쇠평 어린이놀이동산



봉대산

(烽臺山)

해발 183m의 봉대산은 지금까지 남목천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산 정상 부근에는 동구 지역의 유일한 지정문화재인 봉수대가 있다.

또 봉수대 아래는 동해의 절경이 펼쳐지는데 봉대산은 명자산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특히 봉대산 일대에는 조선시대 목장이 있었던 곳이 되어 목장과 연관된 유적과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목장과 마성

마성이라 함은 목장 내 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돌담을 쌓아 놓은 울타리를 말한다.

조선 초기 1,530경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469년 간행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전하는 ‘방어진목장’은 염포와 양정의 경계인 심청골에서 시축하여 주전의 솔밭과 북구 어물동의 경계지역 ‘아리성골천’으로 이어지던 (구)마성의 이야기이다.

『울산부선생안』에는 “갑오년(1654) 1월에 동래 감목관이 본부의 목장으로 이주하였는데, 점마별감이 울산 방어진목장의 옛 석성터가 옛 목장성터라고 장계하니...”라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방어진목장’은 (신)마성인 염포성 내에서 시축하여 남목의 동부동을 거쳐 안미포까지 이어져 있던 (신)마성 이야기로 추정된다.

울산의 동구는 조선조 임진왜란과 이후 약간의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병마를 기르던 목장 지역이었다. 소속이 사복시여서 울산부사의 관할이지만 이종의 직역을 부과하지 않았다. 오로지 목장 내의 목부의 직역만을 담당했다. 순번제로 참여하여 말을 몰아 방목하는 일, 점마 및 말을 길들이는 일, 겨울 동안 먹일 건초를 확보하는 일과 말의 음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못을 파는 일, 우천과 한파를 피하기 위한 마구간과 창고를 짓는 일을 담당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농경과 어업에 종사하

였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1721~1724)에 이곳 감목관으로 부임했던 유하(柳下) 홍세태는 이러한 지역의 풍경들과 가난한 백성들의 절절한 사정들, 시인의 눈에 비친 서정들을 담아 일 백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의 시를 대하면 마치 당시의 풍경과 서정이 담긴 진경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홍세태의 호는 유하(柳下) 또는 창랑(滄浪)이며, 효종 4년(1653)에 태어나서 영조 1년(1725)에 작고한 사람으로, 경사(經史)에 통하고 시에 능하며, 당대에 문호 김창협(金昌協), 김창흠(金昌翕) 형제와 서로 시 짓기를 했다. 후에 이문학관 승정원제술관(吏文學官 承政院製述官) 등을 거쳐 노경에 울산감목관(蔚山監牧官)을 지낸 후 집에 돌아가 1년을 살다가 작고했다. 그의 나이 72세였다. 그가 후세에 남긴 시는 도합 1,627수인데 이중 울산감목 재직 시에 지은 시만도 100여 수가 된다.

그의 묘비명에는 농암(農岩)과 삼연(三淵) 두 선생이 그와 함께 시 짓기를 하였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고 칭찬하기를 “그대는 마음대로 지껄이기만 하면 문장을 이루는 사람(君可謂矢口成章者)”이라고 공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숙종 8년(1682)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갔는데 일인들이 비단 조각을 들고 선생에게 시를 써 달라고 지나는 길을 막고 있었다. 이때 선생이 말을 탄 채 붓을 휘두르니 빠르기가 빛 바람 같고 따라서 시상이 번개처럼 솟아난 것이고 글씨 또한 뛰어났었

다. 그의 시 폭을 얻은 사람은 다 농속에 간직하여 가보로 삼았으며 선생의 초상을 그려놓고 사모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景宗 3년(1723) 7월 초에 청의 사신이 왔다가 돌아갈 무렵 경종 임금의 작은 부채 하나를 내어놓으면서 “여기에 걸맞는 시가 필요하니 시인 홍세태를 시켜 읊시 한 수를 짓게 해서 사자관이 그 글씨를 써 주도록 하라”는 칙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현종 13년(1672)의 『울산부호적대장』을 보면 지금의 동구 지역이 줄곧 ‘동면 유포리’에 속해 있었는데, 숙종 40년(1714)에 비로소 유포리가 유포면이 되고, 동면은 따로 분리되었다. 이때까지 동구 지역은 유포면에 속해 있다가 구마성의 경계로 유포면과 동면이 분리되어 동구의 지명들이 이때부터 유포면에서 사라지는데, 동면의 호적장부가 발견되지 않다가 영조 47년(1771)에서야 동면호적이 보인다.

제리는 남옥방(南玉坊:113호), 제2리 한채방(大鞭坊:35호), 제3리 목장방(牧場坊:39호), 제4리 염포방(鹽浦坊:42호), 염포해리(7호), 제5리 주전방(朱田坊:19호), 주전해리(24호), 제6리 독포방(禿浦坊:미포, 23호), 제8리 방어진방(魴魚津坊:28호), 승호(僧戶) 동축암(2호), 월봉암(1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897년 동구에 있던 목장을 폐지할 때까지는 동구 주민 대부분은 목장의 온갖 잡일의 부역을 지고 있었다. 중앙의 공작자가 파견되어 목장의 말을 처분하고 간 뒤로 동구는 다른 지

역에서는 보기 힘든 ‘말 달구지’가 성행하여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도 말 달구지를 이용하여 화물을 나르는 짐차(화물자동차)를 대신하였다.

동구 지역의 천내봉수대와 남목천봉수대의 관리는 울산부사의 소관으로 근무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울산부사가 관할했다.

이곳에는 또 신마성(新馬城)이 있었다.

신마성은 효종 2년(1651)경에 염포동 성내와 중리의 경계에서 시축하여 당고개 - 홍문들 - 안좌골 - 미포 명재 - 사근달 앞을



● 신마성

지나 미포의 감불 바다에 이른다. 마성의 축성에는 여러 고을의 장정들이 부역으로 동원된 듯하다. 언양과 청도의 담당구역을 표시한 경계석이 놓여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곳을 거쳐 간 감목관의 수는 100여 명으로, 임기는 약 3년 간이며, 선정비석이 남아있었던 목관은 3명으로, 윤졸, 변정엽, 황경이다. 1911년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는 이명우(李明宇), 심석현(沈錫賢), 변정엽(卞廷燁), 서인우(徐仁宇), 고익진(高益鎭), 이만소(李萬沼), 김문근(金汶根) 등의 비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 주민들이 몰래 물어버려서 지금은 3개만 전한다. 또 낙화암 석벽에 시를 남긴 원유영과 300년 전 울산 목장의 감목관을 지낸 홍세태는 이곳에서 100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당시의 풍경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전봉수대

봉수대 산에는 주전봉수대가 있는데 이 봉수대의 본래 이름은 ‘남목천봉수대(南木川烽燧臺)’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곳이 주전동에 편입된다. 봉수제도는 외적의 출몰 같은 위급함을 알리는 군사적 통신수단으로써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약정된 신호체계를 이용하여 이어지는 봉수대 간 신호를 보냄으로써 중앙에서 외침에 대비하였다.



● 보수전 주전봉수대

이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에 와서 의종 3년(1149)에 서북병마사 조진약(曹晋若)의 건의에 의하여 봉수대를 설치하여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다. 세종 때에는 봉수대 축조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일제히 전국적으로 봉수대가 축성되었고, 또 근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다.

이 봉수대는 남으로는 화정동의 '천내봉수대'와 북으로는 우가포의 '유등포봉수대'와 응하였다. 지금은 화대(火台) 하나를 복원하여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3호 보존하고 있으나, 복원된 봉수대의 외면을 놓고 연조(烟竈)와 연통(煙筒)의 기능에 대한 양식

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나선형 계단 역시 복원 이전의 사진과는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맨발 등산로

봉수대에서 주전으로 내려가는 길의 바닥은 붉은 마사토이다. 맨발로 걸으면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기분이다. 1Km쯤 이어지는 산책길은 완만하다. 맨발등산로는 느낌의 미학을 깨닫게 한다. 길가에는 옛날 봉수군들의 계단식 논들과 연못도 있다. 연못가에는 붓꽃, 창포, 부들, 수양버들가지도 있다. 길을 걷다 보면



● 망양대



● 전래동요비

‘망양대’라는 정자가 있어 이곳에서 쉬어가는 것도 좋다. 또 주변에는 한국 전래동요를 새겨놓은 비석들도 보인다.

벚꽃 길

봉대산에서 주전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유명한 벚꽃 터널이 있다. 계곡과 산 등을 생긴 대로 돌고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 길가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이 필 때면 벚꽃 터널이 된다. 구불구불한 길은 자연히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천천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 길이 주전의 벚꽃 터널

이다. 길가를 걷다 보면 아래 쇠평에 어린이 놀이공원도 있고, 어른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긴 공간도 지나게 된다.

위에는 폐쇄된 자동차길 옆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남목3동 사무소로 되돌아오게 된다.



● 주전 벚꽃길

주전 남목고개와 남목 주전고개

재와 고개는 산을 넘어다니던 산길이다. 주전 사람들도 일제

강점기 신문화가 들어오고, 자녀들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자 임산물을 채취해서 팔려두었다가 울산 오일장에 내다 팔거나, 나무를 해다가 방어진의 일본인 이주어촌에 팔아 돈을 만들어 자녀 교육비로 썼다.

이때 남목고개를 넘어서 울산장으로 가거나, 방어진 시장으로 가게 된다. 재나 고개는 차도가 생기기 전 우리 선조들이 다니던 길이다. 시장을 가고, 산골의 다랑이 논으로 가고, 나무를 하고, 소를 먹이러 다니던 길이 재 또는 고갯길이다. 재는 목적지가 있어 주전마을에는 ‘남목고개’ 있고, 남목에는 ‘주전고개’ 있게 되었다.

방어진 삼거리를 옛날에는 ‘목장고개’라 불렀다. 목장이란 화정동과 번덕(일산동)마을을 옛날에는 목장동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또 강동의 구남 마을에는 왕골재도 있다. 일본 강점기에 울동의 안골에서 석탄을 채취하던 골짜기 ‘완걸터’로 넘어다니던 고개라는 뜻이다. 왕골재의 정상은 ‘가분데고개’라 부른다.

고개나 재는 대체로 ‘어디로 넘어가는 고개’의 뜻이 담겨 있거나, 특정한 지역을 지명해 이름 붙인 재도 있다. 예로 달령재는 달골에 있는 재라는 뜻이다. 또 ‘고불고개’라 듣지, ‘아홉사리’라 듣지 고개의 생긴 모양이 지명에 비치는 경우도 있다.

주전의 아낙들은 새벽밥을 먹고 시장에 내다 팔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시장길에 나서는데, 동네 아낙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한적한 고갯길을 넘어다녔다. 새벽녘 산길은 무서웠기 때문에 잡다

한 세상사를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넘어다녔다.

남목 사람들은 이들의 소란하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때면 “주전년들 장에 가나?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오줌싸개 조각상

주전마을에는 최근 생긴 로터리 조형물 아래로 흐르는 내를 ‘봣도랑’ 이라 부르는데, 봣도랑의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도 ‘보밀’ 또는 ‘외짓걸’ 이라 부른다. 또 군막사동이 있던 곳에 송림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보갓’ 이라 불렀다. 여기서 ‘보’ 는 ‘봉수대(봉화대)’ 가 줄어든 말이다.



● 오줌싸개 조각상

붓도랑가에 물레방아 모형과 그 앞에 키를 덮어쓴 어린이가 접시를 들고 소금을 얻으려고 이웃집에 가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 있다.

뭔가 무안하고 민망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이 해학적이다. 옛날 사람들은 어린이가 자다가 오줌 싸면 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 소금을 얻어 오라고 했는데 이 동상은 이런 우리의 민속을 해학적으로 전해 주고 있다.

이 조각상은 우리 고장 출신 증곡(曾谷) 천재동(千再東) 선생의 작품이다. 선생은 1915년 방어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일본의 미술전문학원 소묘과를 수료했다. 해방 후에는 울산을 거쳐 부산에서 줄곧 교편을 잡았고, 부산 동래야류의 탈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1971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18호인 동래야류 탈 제작 기능보유자가 되었다.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울산에서 여러 번 전시회를 가졌다. 탈, 토우, 전래동요를 소재로 한 군중(群衆)의 그림이다. 평생을 민속예술의 연구와 동래야류 탈을 연구 제작하는 장인으로 살다가 2007년 7월에 생을 마쳤다.

주전 지명과 볼만한 곳

주전

주전(朱田)을 ‘주밭’이라 불렀다. 주밭(朱田)을 대체로 훈(訓)

대로 해석하여 토색이 ‘붉은 밭’이라는 지명유래를 달고 있으나, 바닷가에 있는 지명 중에 ‘밭(田)’이 붙은 지명 대부분은 ‘바대’ 또는, ‘바다에’ (~에, 조사첨가)로서 ‘바대(海)’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

주밭(朱田)의 ‘朱’는 ‘붉(赤)’ 또는 ‘붉(曉)’의 뜻이며, ‘田’ (밭)은 ‘바다’의 표기로 ‘붉바다’로 ‘밝은 바닷가 마을’의 뜻을 담고 있다. ‘전하’ (田下)도 ‘바달, 바들’의 이두(吏讀)식 표기이며, 미포동의 松田(솔밭) 역시 좁은 뜻의 ‘솔 바다’로 본다. 제전(楮田)



● 주전미역

은 ‘닥바대’로, ‘닥’은 山의 고어로 ‘산 아래 바닷가 마을’의 뜻을 담고 있다.

‘해등(海等)’은 ‘바닷’, 바다(海)의 古訓은 ‘바닷’, 等의 훈차(訓借) ‘닷’은 ‘바닷’의 末音添記이다. 海의 近訓은 ‘바닷’이나 근고문헌(近古文獻)의 古訓은 ‘바를, 바랴’, 그 속음형은 ‘바를, 바리’ 등이 있다. ‘바닷’와 ‘바랴’에서 ‘ㄷ’과 ‘ㄹ’은 호전한다. 또 바다를 ‘바돌·바달·바대·바들·바를·바르·바래·바당’ 등으로 부른다.

주전 새바대

‘새바대’는 주전 서쪽의 산을 총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새바대’를 도해(圖解)하면, [새(東) + 받(海) + 대(山)]로, ‘동녘의 바닷가 산’의 뜻으로 보고자 한다. 「바대」를 바다(海)의 고어(古語)인 「받」과 산의 고어인 「대」의 결합으로 본다. 주전 흙골 상류에 있는 동래정씨 묘갈에는 ‘新里田下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新里(새말) + 田下(바달海) + 山(대)]= 약칭하면, 곧 ‘새바대’가 된다.

사을들(沙乙等)¹⁾

번덕 마을의 동북쪽과 흙골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사

1) 이유수, 앞의 책, p. 231, 232.

을들’은 사을산리(沙乙山里)에서 비롯된다. 조선 세조(世祖) 원년(1455) 6월 경상도 관찰사의 건의문이 『세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건의문은 유포석보(柳浦石堡)의 성터를 조사한 내용이다.

‘을산의 사을산리(沙乙山里)와 대한리(大閑里)는 경주의 상서지리(上西地里)와 하서지리(下西地里)등의 거주지와 그리 멀지 않아서 엄하게 지킬만한 자리이다.’라고 하여, ‘사을산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주전에는 ‘사을들·사을골·사을끝돌·실을바당’ 등의 옛 지명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을산리’는 주전지역의 옛 지명일 것으로 보인다. 또 사을산리는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효성점(曉星岾)’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둘 다 우리말 이름은 ‘셀뫼마을’의 이두 표기인데, ‘사을산리’는 ‘셀뫼마을’이고, ‘효성점(曉星岾)’은 ‘새별고개’로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주전의 ‘새마을’도 사을산리와 관련이 있다.

성골(城谷)

쇠피이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성골을 옛날에는 ‘방령(芳嶺)’이라 불렀다. 성골의 지명유래는 이 지역에 방어진(舊馬城)의 석장(石牆)이 남아 있어 성골(城谷)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구)마성은 엄포와 양정의 경계인 심청골을 거쳐 성골, 주전과 강동의 경계가 되는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성골에 살던 주민들은 6·25전 후 빨치산에 협조하지 못하게 ‘소개령(疎開令)’에 의해 산의 아랫마을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쇠평 · 새피이(金坪)²⁾

새평(金坪)은 ‘새벌(曙伐)’을 뜻하는 마을이다. ‘금(金)’은 ‘쇠·새’의 훈차(訓借)이고, ‘坪(坪)’은 ‘벌(伐)’이니 ‘새벌’이다. 새평을 조선 초기에는 ‘새벌고개(曉星岾)’라 하여 오래된 마을임을 말해주고 있다.

- 曉星岾 東大山南支 <동국여지승람 울산군 山川>
- 曉星岾 在舞龍山南麓 <正祖十年 울산읍지 山川>

‘曉(새벽효)’의 훈(訓) ‘새밭’의 ‘새’, ‘星(별성)’의 훈은 ‘별’이니, ‘曉星岾(효성점)’은 ‘새벌고개’의 표기로, ‘쇠평 · 쇠피이’의 순우리말 이름이다. 또 조선조 초기에 ‘쇠평’을 ‘살피마을(沙乙山里)’이라 쓰기도 하였다. ‘沙乙:살’은 높은 곳을 뜻하는 수리의 고어 ‘솔’에서 온 말이다. 가지산의 ‘쌀바위’도 수리바위를 뜻한다.

남목(南木 · 南玉 · 南牧 · 藍田)

‘남목천(南木川)’은 이두로 쓴 지명인데, 이를 풀어보면 ‘감나무골’이 된다. 종종 때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에서, ‘남(南)’의 훈은 ‘흙’이고, ‘목(木)’은 ‘나무’이다. 남목천은 ‘흙나무골’인데, ‘암나무골’로 발음된다. ‘암나무골’에서 ‘암(雌) · 엄(母)’의 뿌리 말은 여신(女神)을 상징하는 ‘곰’이다. 따라서 ‘암나무골’은

2) 이유수, 앞의 책, p. 231.

‘곰나모골’이 뿌리 말이다. 이러한 옛 지명은 아직도 남아 지금의 ‘감나무골’과 ‘남목(南木)’이 함께 전해져 온다.

※고마(곰)→어머니로 바뀌어 쓰임. ㄱ→ㅎ→ㅇ로 변함.

파열음 소리 ‘ㄱ’이 약해지면 ‘ㅎ’이 되거나 아예 떨어져 버려서 소릿값을 잃고 마는 수가 있다. 알타이 친어족에서 ㄱ의 반사형으로 람스테트(1939)는 풀이 하였다.

걸어서 돌아보는

울산의 산과 명승지



11월 기행

함월산과 부처봉



신흥사 - 어물동 마애여래 좌상



함월산과 부처봉

울산 인근에는 여러 곳에 함월산(含月山)이 있다. 신흥사가 있는 곳도 함월산(526m)이다. 1911년에 발행된 『조선지지자료』의 마동에 속한 함월산이 바로 이 산을 가리킨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제월당 이경연(霽月堂 李景淵) 선생의 문집에 기박산성을 함월산성이라고 했음을 볼 때 지금과 같이 정착된 것은 조선조 말기로 생각된다. 또 1749년에 완성된 사찬 『울산읍지』에는 이런 지명이 보이지 않고, 통칭 동대산으로 나온다. 옛 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흥사가 있는 골짜기 북쪽 너머는 깊은골(深谷)이다. 이곳에는 ‘대안동 쇠부리터’가 있다. 남쪽 너머에는 다음박골과 우음

(이)골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곳 신흥사가 속한 강동동은 세조 1년(1455)에는 대한리(大閑里)라 불렀고, 정조 때는 상대안리(上大安里)와 하대안리로 나뉘었으며 영조 때는 구암리에 속하였다. 순조 10년(1810)과 고종 4년(1867)에는 대안리로 개칭했고, 고종 31년(1894) 지방 관제 개편에 따라 대안동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경상북도 양남면(陽南面) 신대동(新垈洞)의 일부를 합하여 대안리가 되었다. 19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강동동이다. 함월산의 중요한 문화재로는 신흥사와 기박산성이 있다.

신흥사

대안동 함월산 아래 자리 잡은 신흥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635) 3월에 명랑조사(明朗祖師)가 창건하였다. 명랑조사는 632년에 당나라에 유학해 불도를 닦은 승려로, 신인종(新印宗)의 개조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후 당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낭산(狼山)의 승려 12인과 함께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으로 나라를 구출했으며, 679년 호국 도량인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창건했다.

그가 호국불교를 지향한 인물이므로 신흥사 역시 사천왕사와 같은 호국 도량으로 창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흥사에 대한 당시 기록이나 문헌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절에 전해 오는 기



● 신흥사 응진전

록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문무왕 18년(678) 만리성을 쌓는 동안 승병 100여 명이 머물며 무술을 닦았다고 하므로, 이 절이 승병과 관련된 호국 도량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문성을 신라의 만리성이라고 하는데, 경덕왕 21년(722년)에 축성되었다. 따라서 절의 기록에 보이는 만리성은 관문성이 될 수 없다. 축성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에는 명활산성이 있다. 양남·감포 쪽 바닷가에 상륙한 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인데, 진흥왕 12년(551)에 대규모로 보수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포항 쪽으로 침투한 적을 막기 위한 북형산성도 있는데, 문무왕 13년(673)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기록에서 말하는 만리성은 북형산성으로 보아야 할 것



● 신흥사 대웅전

같다. 어쩌면 기박산성일지도 모른다.

원래 이름이 건흥사인 신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울산지역에서 승군을 동원한 유일한 절이었다. 왜군에게 울산이 함락되었을 때 지운(智雲)을 비롯한 승병 백여 명이 기박산성에 모인 의병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때 절에서 군량미 3백 석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왜군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경주까지 패퇴하는 과정에서 절은 소실되었다. 정유재란 때에도 울산왜성 1차 전투에 승병들이 참여했다.

이후 인조 24년(1646) 기박산성을 방문한 병마절도사 이급(李掇)이 정유재란 때 건흥사가 불타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절을 다시 세워 신흥사(新興寺)라고 이름을 다시 지었다고 한

다. 1992년 지은화상이 적묵당(寂默堂)을 증건할 때 나온 상량문에는 영조 28년(1752) 통도사의 서봉화상이 증건하였으며 당시 기둥 나무는 온양면 망양리 안본산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운반해 왔다고 한다. 또 산내 암자는 염불암, 낙서암, 청련암, 백운암, 내원암 등 5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사채에서 신흥사 중창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명문 암막새 기와가 출토되었다. ‘순치(順治) 10년’이라 쓰여 있는데 효종 5년(1654)이다. 아마도 1646년 중창 이후에도 불사를 계속 일으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숙종 12년(1686)에 일어난 불 때문에 개축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1904년에는 지장계(地藏契)를 조직해 후불탱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신흥사는 또 한 번 시련을 겪게 된다. 신흥사가 자리한 함월산 일대는 경주 접경지역으로 깊은 산골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빨치산 남부군에 속한 남도부의 활동지였다. 이때 신흥사는 빨치산의 주 무대였던 지리산 자락의 여러 사찰처럼 수많은

경전과 판각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었다. 이런 시련을 딛고 남은 건물이 응진전(應眞殿)이다. 응진전은 곧 나한전(羅漢展)이다. 원래 신흥사의 대웅전이



● 응진전의 불상

있던 건물이다. 1998년 대웅전을 새로 지으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소박한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체로 조선후기 건축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내부 천정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반자는 높은 예술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절에 속했던 5개의 암자는 낙서암과 염불암만 지금 복원되었다. 암자 터에서는 조선시대 탐재가, 절 요사채에서는 귀면기와와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옛 명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북구 금천마을 부처봉 기슭 방바위골에 있다. 마애불은 바위에 조각한 불상을 말한다. 어물동 마애여래불상은 울산 유일한 마애불상이다. 남향한 바위에 돌을새김(高浮彫)한 세 불상은 마치 입체조각상의 뒷부분만 벽에 붙인 듯 양감이 뚜렷하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 후기인 9C 초반으로 추정된다. 상체는 상당한 고부조(高肉彫)인 데 비해 하체는 얇은 선각으로 새겼다. 가운데 본존불은 높이 5m, 너비 3.5m이며 좌우 협시보살은 높이 3.5m, 너비 1m이다.

1933년 이곳 황토전(黃土田) 마을에 살던 김불불(金佛佛, 본명 金萬命)의 꿈속 계시에 따라 이 불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다. 발견될 당시 이 마애불은 울창한 숲 속에 이끼와 넝쿨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예부터 마애불이 있는 이 산봉우리를 부채봉(부처봉)이라 부르고,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부채골이라 불렀지만, 정작 불상이 잠자고 있었음은 알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부채만등·방바우마을·방바우골·방바우들이라는 이름도 있다.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인 이 마애삼존상의 존명은 도상적인 면으로 보면 ‘약사여래삼존상’이다. 약사여래불은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유하며, 일광·월광보살은 약사여래불이 중생을 돌봄에 온 세상이 어둡지 않게 해와 달로 밝히는 소

명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약사삼존은 함안 방어산 마애삼존불(보물 제159호)을 들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인접해 있음이 주목된다.

이 불상이 새겨진 방바위는 반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마치 삼존불을 아우르는 커다란 광배와도 같아 보인다. 암벽의 재질이 퇴적암 계통의 사암제여서 전체적으로 손상이 심해 불상의 세부 표현이 분명하지 못하다.

중앙의 본존상은 당당한 체구에 결가부좌한 것으로 보이는데 머리는 육계가 볼록하게 솟아 있다. 방형에 가까운 얼굴은 살이 올라 통통하지만 턱살은 아래로 쳐진 듯하다. 마모가 심해 잘 알아볼 수 없으나 도톰한 볼과 입술에는 열은 미소가 보이는 듯하다. 머리칼은 나발(곱슬머리)로 여겨지며 특히 양 귀가 길게 늘어져 어깨까지 닿았다. 목에는 삼도(주름살)를 뚜렷하게 표현했으며, 양옆으로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는 법의로 통견(通絹)을 걸쳤으나 세부 옷 주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올리고 왼손은 아랫배에 대고 있는데 마모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함을 들고 있는 듯하다.

좌우의 협시(脇侍)보살상은 입상이면서도 본존상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본존불의 두상 중간에 겨우 닿을 정도이다. 몸체보다 얼굴을 크게 표현했다. 머리에는 원형 보주형 장식이 있는 보관을 썼다. 이 보주형 장식 안에 일상(日像)과 월상(月像)을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두 보살상이 약사불의 협시인 일



● 약사여래불

가름한 편이며 양 귀는 길게 늘어져 있다. 얼굴 아래 몸체는 그 형상이 분명치 않으나 한 손은 가슴 앞으로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아래로 내린 모습이다.

불상이 등을 대고 있는 암벽 위쪽에는 서까래를 걸쳤던 것으로 보이는 홈이 좌우대칭으로 모두 6~7개 있다. 약한 석질의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얹었던 흔적이다. 바위 뒤로 돌아 가면 가로로 길게 난 3개의 홈이 뚜렷해 전설의 존재를 더욱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불상이 있는 이 바위를 가리키는 방바위라는 이름이 전해졌을 것이다. 또 마애불상 주변에서 전설에 쓰였을

광보살과 월광보살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협시보살로 일광과 월광보살이 주로 등장하는 부처는 약사여래와 칠성여래가 있다. 이 중 칠성여래는 조선 시대 우리나라에만 보이므로 위본존불을 약사여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협시보살의 얼굴은 본존상과 달리

것으로 짐작되는 기왓조각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석불 채색론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전실이 있는 일종의 석굴사원이었기 때문에 실내에 있었을 이 불상을 식별하기 위해 채색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국 위덕대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어물동 마에여래삼존불상에는 현재 채색이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옛 석불이 채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좋은 자료다. 진한 커리색에 가까운 바위색깔 때문에 조성 당시 이목구비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채색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한다.

마애불상 10여m 앞 한 단 낮은 곳에는 편편한 바위에 옷판 모



● 뒤 : 여근바위, 앞 : 마에여래불

양을 새겨놓았다. 길이 20cm 정도의 원형 혹은 정사각형 홈을 새긴 암각화로 보인다. 따라서 고대인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마애불상을 찾아 기원했듯이 후손 문제로 가슴앓이하던 이들이 찾았던 바위도 있다. 마애불 바로 뒤에는 방바위보다 더 큰 바위가 있다. 여근을 닦았다는 여근바위이다. 여인의 음부 아래 바위에 문신처럼 새겨진 두 마리의 용은 동해를 바라보고 있다. 이곳에서 공을 들이면 아들을 얻는다는 구전 때문에 지금도 여인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당사동에 있는 용굴(용나테·용난테)과 아그락할매의 전설도 있다. 이 전설 속의 아그락바위 위에는 작은 돌이 여러 개 있고, 돌 아래에는 기다랗게 패인 홈이 나 있다. 할매를 향해 빌고 또 빌었던 민중들의 간절함이 남긴 흔적이다. 이 작은 돌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며, 할매가 소원을 들어줄 때는 작은 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전한다. 그러나 지금 만날 수 있는 이 아그락할매 바위는 그 역사가 깊지 않다. 근래에 전설에 맞추어 누군가가 옮겨놓은 돌이다. 아그락할매의 전설은 마애불 왼쪽의 험로를 따라가다 만나는 석굴(석굴이라고 전하나 분명치는 않다)에서 시작되었다.

마애불(磨崖佛) 알아보기

마애불은 인도에서 석굴사원의 벽면에 새긴 불상이 처음이다.

기원 전후 시기부터 석굴사원을 인공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며 5세기경에 꽃 피기 시작했다. 특히 대승불교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잔타의 초기 석굴과 후기 석굴 그리고 후진의 주불 등이 주로 돌을새김으로 새겨 졌다. 오랑가바드 석굴 등에서는 벽면마다 불·보살상을 가득 새겼으며, 마애불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석굴의 돌기둥에도 불상을 나선형으로 돌을 새김해 새겼는데, 석굴 아닌 절벽이나 바위 면에 감실을 파고 새긴 간다라 스와트 지방의 마애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마애불은 경주 남산 마애불과 거의 비슷해서 우리나라 마애불의 선행임을 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있는 석굴은 수십 미터나 되는 초대형 석굴이며, 돈황석굴 등에도 마애불이 새겨 졌고,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약수계와 삼릉계에 있는 마애대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옛 장안인 서안 일대의 맥적산석굴이나 장안의 각 감실에 마애불들이 수없이 조성되었고, 운강, 용문, 천룡산, 타산 등은 물론 사천의 지역마다 수많은 마애불을 새겼다. 특히 산둥 지방의 운문산 석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마애불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마애불은 간다라 서역 지방을 거쳐 중국 각지의 수많은 석굴에 조성되었으며, 인도와 중국의 마애불은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와 달리 석굴이 아닌 대형 바위나 절벽 또는 돌기둥 등에 크고 작은 감실을 파고 마애불을 조성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양질의 화강암지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애불은 화강암 절벽이나 큰 바위 화강암에 새겼고, 화강암이 다른 바위에 비해 비바람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마애불은 크게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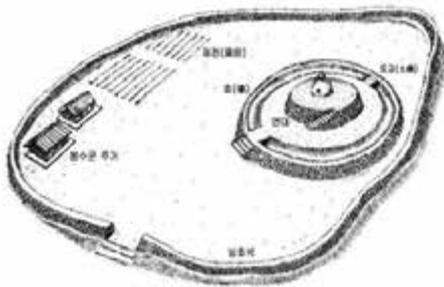
유포봉수대

유포봉수대는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3호로 어물동 마래여상에서 조금 떨어진 당사동 우가산에 있다. 봉수대는 인근 봉수대와 서로 연락하여 변방에 일어난 긴급한 상황을 중앙과 해당 진영에 알리던 옛 군사 통신 수단인 하나이다. 사방이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燧)로 밤에는 불빛(燧)으로 신호를 보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통신 체제가 정비된 것은 조선 세종 때였다. 오장(伍長)과 봉군이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평상시에는 한 화, 적이 나타나면 두 화,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화, 적이 국경을 넘어오면 네 화, 적과 접전하면 다섯 화의 봉수를 올렸다고 하는데, 고종 31년(1894) 전화가 보급되면서 폐지되었다.

최근 봉수대 인근에는 축구 전용구장이 생겨 휴일이면 축구대회를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봉수대는 축구장 우측 해발 173.5m인 우가산(牛家山) 정상부에 있다. 입지상 동쪽으로는 해안과 인접하고 있으나 나머지 삼면은 산지를 이룬다. 유포봉수는 남쪽에 있는 남목천(지금의 주전)봉수대에서 연락을 받아, 북쪽의 경주 하서지(下西知)봉수대로 전달하는 울산의 마지막 지점으로, 인접한 유포석보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석으로 쌓은 둥근 아궁이 모양인 봉수대는 지름 10m, 높이가 3.5m이며, 주변에 돌로 쌓은 방호벽과 봉수군 막사 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시기 유포봉수가 속한 제2로 간봉(間烽) 1노선의 연결 봉수망을 살펴보면 동래 간비오봉수에서 시작해 ‘기장 남산(南山)→임랑포(林郎浦)→아이(阿爾)→이길(爾吉)→하산(下山)→가리(加里)→천내(川內)→남목(南木)→유포(柳浦)→경주 하서지(下西知)’의 순으로 동해안을 따라 북상, 영덕 대소산봉수까지 올라간 뒤 내륙을 거쳐 안동 봉지산봉수에서 제2로 직봉과 합류하였다.



● 유포봉수대 도형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까지는 이런 노선이 유지되지만, 『학성지』(1749)와 『여지도서』(1765)에는 기장 임랑

포붕수와 울산 유포붕수가 보이지 않아 이 책들이 편찬된 1530년과 1749년 사이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두 붕수와 전후 붕수대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필요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유등포(柳等浦)붕수라고도 하는 유포붕수는 울산의 8개 붕수 가운데 사용 시기가 조선 전기로 한정되는 유일한 붕수다. 따라서 유포붕수를 제외한 7개 붕수는 붕수제도가 폐지된 고종 31년(1894)까지 운영되었던 관계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형태나 구조는 조선 후기 모습이다. 반면 유포붕수는 조선 중기에 사용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구는 조선 전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유포붕수를 조선 전기 붕수대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유포붕수는 타 붕수에 비해 공간배치 및 구성방식이 매우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붕수대는 방호벽과 호(壕)에 의해 자연적 공간인 외부와 인공적 공간인 붕수대로 구분이 된다. 유포붕수는 먼저 정상부 평탄지에 긴 석축 방호벽을 둘러 일곽을 구성하였다. 내부공간에는 다시 북동쪽 방호벽에 치우쳐 호를 만들고 그 안에 중심 거화시설인 연대(煙臺)를 배치하였다. 유포붕수와 같이 큰 테두리(방호벽) 안에 또 하나의 작은 테두리(호)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공간 속의 공간’이라는 복층(複層) 구조를 갖도록 하는 붕수대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유포붕수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을 피우는 시설인 연대는 평지에 높이 50~60cm, 둘레

89.6m가량의 토·석 혼축 기저부를 마련한 후 그 위에 축조하였다. 현재에도 높이 3~3.5m, 하단부 둘레 43.7m가량이 남아있다. 상부의 일부 석재가 하부로 흘러내려 형태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원래는 원통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대 위로 오르내리기 위한 오름 시설은 무너진 잔존 유구 형상으로 미루어 보아 나선형 계단구조로 짐작된다. 또 연대 상부 중앙에는 지름 180~200cm가량의 원형 연소실 흔적도 확인된다. 연대 주변의 석재는 일부 적갈색으로 산화되어 불에 탄 흔적이 뚜렷한데 편마암 계통과 해수석(海水石)으로 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재이다. 연대 주변에서는 투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치하였던 수마석(水磨石)이 일부 채집되고 있다. 방호벽 내 연대 남서쪽으로는 평지 상에 넓은 공지가 존재하며 경작 흔적이 확인된다.

하지만 아직 유구에 대한 정확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터가 과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주위에서 기왓조각이 수습되고 다른 지역의 봉수대 발굴사례로 비추어 볼 때 봉수군의 주거용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포봉수가 학계의 시선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심한 훼손 없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석축 방호벽에 있다. 가장 잘 남아있는 동북쪽의 석축을 통해 방호벽의 크기를 재어보면 높이가 약 1.5m이며 너비는 약 60cm 내외이다. 평면 형태는 부정형으로 해안과 인접한 동쪽에는 거의 일직선을 이루나 나머지는 타

원형을 띤다. 방호벽 길이는 동서 56.2m, 남북 59.4m 정도이며, 전체둘레가 약 216m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삼국시대부터 2,000여 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수단으로, 변방이나 연안의 상황을 중앙정부에 연결하는 ‘햇라인’ 역할을 했다. 전국에 총 623곳에 설치돼 그물망처럼 상호 연결 신호체계를 구축했다. 직선봉수는 대략 30리(12km)마다 설치됐다. 울산과 부산, 경남권에서 수도로 전달하는 제2로는 오늘날 경부고속도로, 호남지역의 제4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비슷한 노선이다. 역할과 위치는 오늘날 전파 중계소와 매우 흡사하다.

조선 시대 전국의 봉수망은 서울의 목멱산(남산)에 설치된 중앙 봉수인 경봉수(京烽燧)를 축으로, 국경선이나 바닷가 근처의 최 일선에 설치된 연변봉수(沿邊烽燧)와 전국에 그물망처럼 설치된 내지봉수(內地烽燧)가 모두 수도 한양의 경봉수에 연결되는 체계로 짜였다.

전국의 봉수(내지봉수)는 총 5개의 직봉 노선이 설치·운용됐다. 함경도 경흥~강원도~경기도로 연결되는 제1로(路), 동남권(부산·경남 동부·울산) 상황을 경북을 거쳐 충북~경기도로 연결되는 제2로, 평안도 강계~황해도~경기도로 연결되는 제3로, 평안도 의주~황해도 서해안~경기도로 연결되는 제4로, 전남 순천~전북 해안~충남~경기 강화도 해안에 이르는 제5로의 노선이 있었다.

봉수의 종점인 남산에는 5개 노선에서 올라온 봉수를 받기 위

해 다섯 군데의 봉수대가 만들어졌다. 남산 정상 능선을 따라 설치되었던 5개소의 봉수대 중 동쪽의 제1 봉수대는 양주 아차산봉수와 서로 마주 보며 함길도·강원도에서 오는 봉화를 받았고, 제2 봉수대는 광주 천림산봉수(현재 성남시)와 마주 보며 경상도 봉수를 수신하였다. 제3 봉수대는 무악 동봉에서 평안도 봉수를 수신하고, 제4 봉수대는 무악 서봉과 대응, 평안도·황해도 봉수를 수신하며, 제5 봉수대는 양주 개화산봉수와 상응, 충청도·전라도 봉수를 수신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산에서 올린 봉화는 현재의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있었던 병조(兵曹)에서 취합해 매일 새벽 승정원에 보고하여 국왕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만약 변란이 있으면 밤중에라도 즉시 승정원에 보고토록 하였다. 봉화는 매일 초저녁에 올렸는데 먹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 제대로 봉화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봉수군 1명이 남소(즉 창덕궁 단봉문·단봉문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동편의 작은 문)의 부장에게 달려가 보고하고, 남소 부장은 곧바로 병조에 상황을 알려야 했다. 그리고 병조에서는 봉수단자(烽燧單子)를 올려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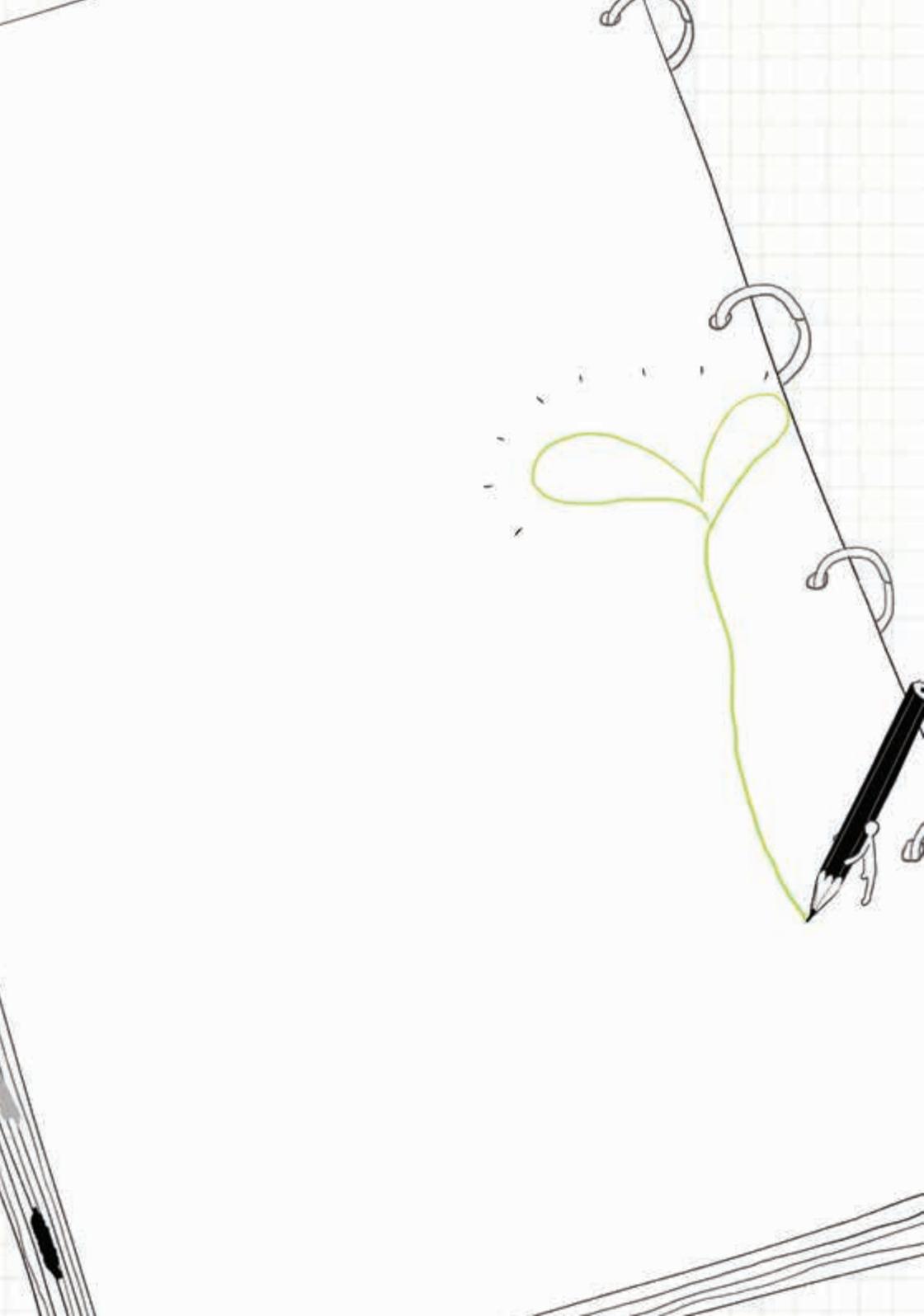
울산과 부산·동부 경남 일원의 동해 남부 지역에는 부산을 시작점으로 총 124곳(직봉 34곳, 간봉 90곳)의 봉수대가 설치됐다. 직선봉수(직봉)는 서울까지 곧바로 이어주는 주 봉수로, 오늘날 고속도로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간선봉수(간봉)는 각 지방에서 일어난 군사 정보를 직선봉수로 알리는 직선봉수의 보조선로

격으로 오늘날 지방도로와 역할이 비슷하다.

울산지역에는 총 8개의 봉수대(주봉 2곳, 간봉 6곳)가 설치·운용됐다. 울산과 부산, 경남 동부해안의 상황을 수도로 연결하는 동남권의 주봉(主烽)은 부산 다대포진에서 처음 햇불이 오르면 다대포의 구봉~부산진의 황령산~동래의 계명산~양산의 위산~울산 삼남의 부로산(夫老山)~울산 두서의 소산(所山)봉수대를 거쳐 경주 고위산~안동~충주~남산에 이르도록 설치·운영됐다. 이들 주봉에다 울산을 비롯한 동해 남부지역의 상황을 전달하는 간봉망(間烽網)은 훨씬 더 많이 설치됐다. 간봉은 부산진의 황령산을 시작으로 동래의 간비오산~기장의 남산~장안읍의 임량포와 아리포~울주 서생면의 이길곶~하산~가리~천내~남목천~유포 간봉을 지나 경주 양남의 하서지(下西知)~경주 독산(禿山), 포항 장기의 북길~뇌성산~영일~홍해~안동까지 이어졌다.

※참고문헌

- 『국역 학성지』, 성범중(역주), 울산남구문화원, 2010
- 『땅이름 울산사랑』, 강길부, 정도, 2002
- 『북구의 문화재』, 박중훈, 울산북구문화원, 2011
- 『북구지명사』, 울산북구문화원, 2011
- 『울산광역시사』,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15
- 『울산지명사』, 이유수, 울산문화원, 1986
- 『울산향토사 산고』, 박중훈, 디자인 오름, 2013
- 『향토와 지명』, 강길부, 정음사, 1985





2016 달빛문화기행
걸어서 돌아보는
울산의 산과 명승지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인 변양섭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집 필 장세동 동구문화원 지역사회연구소장

박중훈 북구문화원 향토사학자

김신영 중구 향토사 연구소 연구원

장성운 울주문화원 향토연구소 소장

기획·진행 예양해·엄순희

발행처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24 T.052-268-2970~1

인쇄처 명디자인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은 울산광역시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 있습니다.